

함께가는 여성

2009.3-4 www.womenlink.or.kr



민우ing

- 회원확대 캠페인 '당신과 그리는 유쾌한 변화, 바로 지금!'
 -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그 거대한 매트릭스의 함정
 - 인권까지 삼질하는 MB정부 기획 내안의 '다중이'
- 민우역사기행 예산에도 성(性)이 있다



여성이 웃는다. 세상이 웃는다.
봄이 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추운겨울을 지낸 우리가 싱그럽게 웃는다.
미소와 함께 찾아오는 우리들의 웃음소리.
우리들의 웃음소리가 당신들에게 번지고,
세상으로 번져 모두가 웃을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웃으며, 즐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
안녕? 봄아. 새삼스레 너를 만나 우리가 웃었어.
어느새 웃음이 번진다.





- 02 민우ing 회원확대 캠페인 '당신과 그리는 유쾌한 변화, 바로 지금!'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그 거대한 매트릭스의 함정
인권까지 삼질하는 MB정부
- 11 민우스캐치
- 12 민우칼럼 창 연쇄살인범을 잡으려다 우리가 놓친 것
- 14 철학노트 봄의 정원으로 오라
- 17 민우역사가행 예산에도 성(性)이 있다
- 20 기획 내안의 '다중이'
- 내 안의 지킬 박사과 하이드씨에게 평화를!
- 'A=A' 라 단호히 말하기 힘든 이유
- 모순과 분열은 창조성의 원천이다!
- 30 쟁점과 현안 관료법관들에 의해 위협받는 사법독립
법관의 독립과 헌법의 명령
실효성 있는 내용도, 비전도 없는 현 정부의 여성정책
MB식의 무리한 개발추진과 과잉진압이 빚어낸 참사
- 38 MB와 나 우리 왜 '아직도' 분노하는가?
- 40 문화산책 낮술의 롱테이크
- 42 나의 삶, 나의 이야기 나의 성우 이야기!
- 44 마포나루에서 큐슈 여행에서 느낀 소소한 즐거움에 대하여!
- 46 생협이야기 희망 담은 봄맞이 건강 밥상
- 48 9개의 시선 진주여성한미당
- 49 지부소식
- 52 독자마당



회원확대 캠페인 ‘당신과 그리는 유쾌한 변화, 바로 지금!’

주현정(주가이) ●

당신과 그리는 유쾌한 변화! 새로운 1,000명이 온다~!

2009년 민우회는 회원 여러분과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당신과 그리는 유쾌한 변화, 바로 지금!’입니다. 일명 ‘1,000명’이라고도 하지요.^^ 민우회가 그리고자 하는 변화는 회원확대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성주의 운동을 알려내고, 재정적으로 좀 더 탄탄한 민우회를 만들고자 하

는 것입니다. 민우회본부에는 현재 회원 1,300명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상적인 운영, 활동비를 안정적으로 충당하기에는 꽤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우회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 온 여성운동이 좀 더 탄탄해지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원만이’ ‘희망’ 이랍니다. 민우회 회원과 함께 그리는 유쾌한 변화,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민우회가 났다 - 민우회가 거리로 나간 까닭은?



새로운 1,000명 만나기 미션은 '회원확대를 위한 거리캠페인'과 '회원과 함께하는 캠페인', 두 가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3월 8일 세계여성대회를 기점으로 시즌 1¹⁾을 성황리에 마친 거리캠페인은 올해 회원확대 캠페인의 백미입니다. 1,000명의 회원확대 목표를 세우자 한 층 힘들어진 경제 상황까지 $\pi.\pi$.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지만, 변화는 가만히 있는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갔던 거리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우회 활동을 소개하고, 후원에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캠페인이 신선하다는 반응이었고, 민우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야후!

월경주기팔찌 만들기, 성폭력통념체크 징검다리, '당신은 직장에서 안전하십니까?' 체크리스트, 고용차별 거리상담, 희망목걸이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 한 이번 거리캠페인의 제목은 '나에게 민우회란 든든한 빵이 있다'였습니다. '성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 성차별 없는 안전한 직장,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위해 민우회가 든든한 빵이 되겠습니다. 민우회 활동에 후원해주세요' 하는 캠페인이었지만 사실 민우회의 든든한 빵이 되어줄 시민을 만나는 자리였던 거죠.



1) 시즌 1 거리캠페인은 3월 4일~3월 8일까지 진행되었고요. 평일 점심시간과 주말 오후 시간에 정동 거리에서 그리고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는 여성대회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했지요. 자세한 캠페인 스케치는 민우회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어요.

멋진 회원 · 맛난 빵을 사다주신 회원 · 격려해주신 회원

전날 가져간 회원 가입서를 뒷주머니에서 멋지게 찢- 꺼내셨던 새로운 회원님은 물론, 점심 식사하러 가던 길에 보시곤 일부러 맛난 빵을 사가지고 다시 찾아와 격려해주시던 회원님의 남편, 그리고 회원임을 밝히시며 수고하라고 밝게 인사해주시던 회원님까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추운 날씨와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을 깨끗이 지워주셨습니다.

이번 거리캠페인에서 45명의 시민분들이 민우회의 든든한 빵이 되어주시겠다는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민우회는 회원확대 캠페인 시즌1의 인기를 바탕으로 시즌2와 시즌3을 준비 중에 있지요. 민우회는 또 새로운 시즌을 준비 하면서 어느 날 문득 점심 식사 하러 가는, 나들이 나온 반가운 얼굴을 만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설렘에 차있답니다.

유쾌한 변화 두 번째 '딱 한명', '딱 한잔'

또 다른 미션은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하는 '딱 한명', '딱 한잔'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미 눈치 채셨을 텐데. 1,000명. 사실 지금의 1,300명의 회원님들이 민우회의 운동에 뜻을 같이 해줄 거라고 확신이 드는 (최소) 한 사람에게만 회원 가입을 권유, 가입이 이뤄진다면 바로 만들어지는 변화이기도 합니다.(물론, 말이 쉬운 거지요 ㄱㄱ) 그리고 내가 마시는 술, 커피 한잔을 아껴서 회비인 상캠페인에 함께 하면 민우회는 좀 더 열심히 여성주의 확산을 위해 전념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흔히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죠. 사실 '티끌모아

○ 민우ing

태산'이란 속담은 엄청난 진리를 가진 교훈이기도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천이기도 합니다. (물론, 엄청난 결심이 필요한 것이지만 ㅏ_ㅏ) 잊지 마세요. 민우회가 함께 그리고자 하는 유쾌한 변화는 회원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글을 읽을 즈음 민우회로부터 편지 한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회원희망팀에서 전화 드렸을 때 마음으로, 실천으로 기꺼이 함께 하겠다는 유쾌한 답변 기대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딱 한명'과 '딱 한잔'을 위한 팁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딱 한명 을 위한 Tip

하나, 내 주변 인물들 중에서 아직 민우회 회원이 아닌 사람을 탐색해 본다.
 두울, 민우회 소식지 <함께가는 여성>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눈에 띄게 한다.
 세엿, 민우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민우회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다.
 네엿, 민우회 회원 희망팀에 전화해서 "내가 ○월 ○일까지 딱 한명을 성공시킬 것이니 기대하라"고 이야기한다.
 다섯, 서서히 민우회에 관심을 가질 무렵 "민우회가 나에게 든든한 짝이 된단다. 너도 짝 필요하지 않니?"하고 물어본다. (아, 어쩌면 좋은개!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이 문장!)

딱 한잔 을 위한 Tip

하나, 점심을 맛있게 먹고 커피한잔을 테이크아웃해서 봄기운을 느끼며 여유로운 산책을 즐긴다.
 두울, 산책이 끝날 무렵 '내일은 테이크아웃 커피 대신 집에서 싸온 상큼한 과일로 후식을 대신해볼까'하고 결심한다.
 세엿, 민우회 회원 희망팀에 전화해서 아껴둔 커피값으로 "딱 한잔에 동참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네엿, 그리고 다음 날 따뜻한 봄 햇살과 싱그러운 봄바람의 향취를 더하는 상큼한 과일 후식을 즐긴다.

개봉박두~! 1,000명 스캔들

민우회 뿐 아니라 다른 시민 사회 단체들도 회원확대를 올해의 제1의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흔히 주요 단체로 분류되는 모 단체는 10,000명 목표라는 말에 살짝 주눅 들기도 했지만 민우회가 가장 먼저 실천에 옮겨 다들 부러워하고 있는 중이란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민우회는 바로 실천을 했을 뿐이고~)



시즌1 거리캠페인에서 만난 시민분들과 회원분들의 지지와 성원에서 용기를 얻었고, 브로셔와 함께 '후원바랍니다' 한마디를 건넸던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금 민우회는 분명 1,000명 스캔들로 유쾌한 변화를 그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과 그리는 유쾌한 변화, 바로 지금!'

민우회의 든든한 짝, 회원 여러분도 함께 해요!

함께 하고자 하는 분은 주저 없이 전화주세요. 회원분들의 목소리가 무지 궁금한 바람, 여경, 여진, 주가이(회원희망팀)은 항상 대기 중입니다. (02-737-5763 회원희망팀)

주현정(주가이) ● 심지상에 빛나는 민우회 10년 민우회와 함께 성장해온 자신에 대한 보답으로 1,000명을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불타고 있는 기특한 인(人). '뽕딱 주가이'에서 '1000 주가이'로 개종 중임.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그 거대한
매트릭스의 함정¹⁾

최김하나(하나) ●

여기는 매트릭스의 세계. 어느 날 네오는 갑자기 들이닥친 스미스 요원들에 의해 공격을 받는다. 영문도 모른 채 몸을 피하던 네오는 불현듯 컴퓨터 모니터에 떠오른 메시지를 발견한다.

“이유를 알고 싶다면 2009년 3, 4월호 <함께가는 여성> 5페이지를 보라 - 트리니티”

네오는 곧바로 <함께가는 여성> 5페이지를 펼쳐 든다. (네오는 민우회원임♡) 동시에 광음이 울리며, 순간 이동! 정신을 차려보니 네오의 앞엔 스미스 요원들 대신 모피 여사와 트리니티가 서있다.

1) 이 글은 상담소 '오이'가 '새울 행정 시스템'에 관하여 여성부에 제출한 의견서, '시스템에 가려진 질문에 주목하라!'를 참고했습니다. 새울 행정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각 지자체의 행정관련한 모든 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민우ing

네 오 당신들은 누구냐. 아까 날 공격하던 자들과 한 패인가? 여긴 어딘가?

트리니티 나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성폭력 피해생존자 트리니티이고, 이쪽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활동가 모피어스이다. 우리는 국가복지정보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당신을 공격했던 그들이 누군지 알려주겠다.

네 오 국가복지... 뭐? 뭔지도 모르고 함께 할 수도 없다!
모피어스 국가복지정보 시스템, 다시 말해 사회복지 시설들의 운영정보를 모조리 기록하여 관리하고 보관하는 전자 정보 시스템이다. 노인, 장애인, 어린이, 한부모가정 등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개인 정보는 물론, 후원자 정보나 회계 관리 등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이 이 시스템 상에 기록되는 것이다.

네 오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민우회원 답지 않게 땀뺩(?) 하다;)

트리니티 정보인권 감수성이 바닥을 기는군! 쫓쫓. 저런 민감한 개인 정보는 유출될 경우 극심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정보 수집 자체를 제한하도록 국제 규정에 명시되어 있던 말이다! 각 시설마다 운영에 필요한 만큼 각자 관련 사항들을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어째서 저렇게 과도한 개인 정보를 단일한 시스템 상에 모아 두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냐?

네 오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라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면 될 것 아닌가?

모피어스 옥션이나 다음 같은 거대 사이트에서의 정보유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는 처음 모으기는 어려워도 일단 집적되기 시작한 이후의 안전성은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다. 0.1%의 누출 가능성만 있다 해도 이미 사후 피해는 견잡을 수 없이 커진다. 때문에 유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정보는 애초부터 수집하지 않는 것이 기본인 것이다.

네 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싸우는 것인가?

트리니티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던 국가복지정보 시스템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까지 사용하도록 정부에서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모든 상담내용과 입소자 관련 기록을 죄다 입력해야하는 '새울행정 시스템(이하 새울)' 사용을 요구하더니, 관련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자, 이번엔 '그 대신 국가복지정보 시스템의 일부를 사용하라'며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 상담소와 시설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줄 수 없다며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기도 하다.

모피어스 가정폭력(이하 가폭), 성폭력(이하 성폭) 상담소와 시설의 경우 내담자·입소자에 대한 비밀 유지와 안전에 관한 신뢰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새울'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힌 여성부가 이번엔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의 회계기능을 사용하라며 나선 것이다.

네 오 회계기능만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소지와 무관한 것 아닌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면 회계 보고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더 편리해질 것 아닌가.

트리니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군. 물론 일부 상담소에서는 이 시스템의 회계 기능이 편리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보조금 사용을 보고할 때 유용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회계 기능이 정말로 편리하려면 상담소나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것을 상세히 입력해야만 효율성이 발휘된다. 그러려면 내담자의 의료비 지원 정보나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한 개인 정보가 또다시 기록되어 중앙 집적 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시스템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애초에 모든 정보의 집적을 담보로 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모피어스 이를 방지한답시고 보조금에 국한한 회계 정보만 입력하게 된다면 각 상담소나 시설 마다 자체 회계 처리 방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중 작업을 해야 하는 엄청난 업무 과중 부담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간 보조금 사용과 시설 운영에 대한 회계 보고는 수기 장부에 대한 감사로서 철저히 이루어져 온 부분이다. 국가가 앞장서서 진행해야 하는 여성폭력 근절사업을 열악한 정부 보조금으로나마 열의 있게 진행해온 상담소와 시설들의 현장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 발상만 앞세운 잘못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네 오 그런 것 같군. 그렇다면 저들이 나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트리니티 저들은 매트릭스 정부, 일명 M정부의 스미스 요원들이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국가복지정보 시스템 상에 후원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메뉴가 있다. 후원자의 주민등록번호에서부터 주소, 연락처, 이메일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당신은 민우회 회원인 걸로 알고 있다. M정부로부터 '불법 시위 주도 단체'로 규정된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 후원을 했다면, 그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고 어떤 식으로 악용되었는지는

누구도 모를 일이지.

네 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디에 후원을 했는지, 내가 누군지를 왜 모은단 말인가!

모피어스 이제 가족, 성폭 상담소와 시설들에 강요되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알겠나? 과도한 정보 집적의 문제는 이미 교육행정시스템 'NEIS'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효율과 정보인권은 맞바꿀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자, 어때? 우리의 싸움과 함께 할 텐가?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을 둘러싼 상담소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나요? ^_^

물론 네오의 후원 정보가 노출되어 공격 받는 상황은 픽션이기도 하거나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모든 사회복지시설과 일부 가족·성폭 상담소 및 시설들이 현재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상담소와 시설들 역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시스템 사용을 종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사자 정보와 내담자 지원 사업을 비롯한 회계 전반, 후원자 정보까지 고스란히 입력되어 집적되는, 위험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이 시스템을 '효율'을 앞세워 사용하는 것이 정말 괜찮은 걸까요? 공짜 경품을 위한 온라인 이벤트에 거리낌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우리의 습관을 비롯하여 정보인권 감수성의 안테나를 예민하게 세워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정보 인권이 보장되고, 각 단체의 활동 성격에 알맞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민우회 성폭력상담소와 그 밖에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은 부당한 시스템 사용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실 거죠? ^o^ 앎

최김하나(하나) ●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엔
선생과 의사가 있대요! 난... 왕진 요청 ><



인권까지 삽질하는 MB 정부

강선미(필) ●

2001년 11월 '인권'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생겨났다. 이후 약 8년 동안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다양한 이들의 인권침해 및 차별 문제들을 다루어온 인권위는 그간 어디에서도 하소연할 수 없었던 힘없는 개인들이 겪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 터놓을 수 있는 기구로서 그리고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언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09년 현재, 인권위의 정부정책 시정 요구 역할이나 인권위를 통해 인권

침해 및 차별로부터 구제받고자 하는 이들의 진정 창구가 줄어들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작년 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인권위 조직축소방침을 최종통보 한 상황인 것이다. 광주, 부산, 대구 3개 지역 사무소 폐쇄를 포함하여 체제 축소 및 인원 감축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사무소의 경우 서울 본부로의 진정 접수 및 처리가 어려운 해당 지역권 주민들(농민, 생활시설인, 고령층 등)의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도록 하고 사건의 조사·처리에 있어서도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와 역

활성이 분명히 있다. 더구나 해마다 진정상담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면전(面前) 진정 외에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 한다'는 행안부의 입장은 지역 사무소 폐쇄 방침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또한 현재 5국 22과 체제를 3국 10과로 축소시키고, 인원을 208명 146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진정 업무를 포함하여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개선권고, 인권침해 예방조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과 같은 인권위의 다양한 역할들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문제는 독립기구로서 그 의미와 역할성이 상당한 인권위를 정부(행안부) 조직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를 포함한 211개 시민 단체들(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축소 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은 3월 2일 이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가졌다.

독립기구 국가인권위원회보다 정부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투쟁단과 행안부 관계자의 면담 중 행안부측은 인권위가 축소된다 해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그 축소를 메울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진정 접수를 받아 인권침해 요소를 해소하고 차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독립기구인 인권위와 다르게 정부 기관인 권익위는 부패신고 상담과 고충민원에 대한 신청을 받

는 기관이다. 권익위 활동내용이나 방향 자체가 인권위보다 협소한 만큼 활동대상이나 범위 역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



며, 이같이 그 위상과 방향성이 엄연히 상이한 기구 간의 비교는 가당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측은 인권위와 권익위의 차이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권(權) 자가 들어가니 비슷하지 않느냐'는 어이없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 이 무지하고 불성실한 답변만으로 MB 정부의 바닥을 드러낸 인권 감수성 척도를 유추할 수 있기는 하다.

인권위는 파리원칙²⁾에 따라 만들어진 독립기구로서 권익위와 다르게 입법·행정·사법 어느 부분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인권위는 외압에 큰 영향력을 받지 않은 채 인권침해 및 차별 소지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해당 정부 부서에 직접 시정 요구를 해 줄 수 있었다. 일례로 2005년 논란이 되었던 비정규직 관련 법안³⁾에 대해 인권위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 취지를 살려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여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예로 2006년 인권위는 '인권사각지대'인 수감/교정시설여성 재소자의 성희롱 및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 방문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여성 재소자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처럼 인권위약계층 관점에서의 인권위 활동이 가능할 수 있던 바탕은 독립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라 볼

1) '부패방지과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체(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acr.go.kr/> 위원회 소개 참고) 지난 해 2월에 만들어졌다.

2) 인권위는 1992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파리원칙 중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국가 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함)'에 따라 만들어졌다.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민우ing

인권위의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과연 정부 정책에 대한 개/시정 요구, 개선 방안 제시 등과 같은 역할들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불편한 진실'을 직언하는 독립기구 인권위의 조직 축소 방침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 내 인권문제 마저 삽질하려는 현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점점 더 위기의식만을 고양시킬 뿐이다.

수 있다. 만약 인권위의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과연 정부 정책에 대한 개/시정 요구, 개선 방안 제시 등과 같은 역할들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불편한 진실'을 직언하는 독립기구 인권위의 조직 축소 방침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 내 인권문제 마저 삽질하려는 현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점점 더 위기의식만을 고양시킬 뿐이다. 이번이 인권위 조직 축소라면, 다음은 또 어느 부분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삽질 해낼 것인지, 염려심이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일상 속 인권·차별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위 조직축소방침의 배경으로서 '경제위기'와 '운영효율성'과 같은 행안부의 근거는 결과적으로 MB정부의 정책 전반에 있어서 인권 감수성의 바닥을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책으로 정부와 기업은 '고통분담'을 주창하면서 결국은 가장 먼저 힘없는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인턴제 적극 도입, 대학졸업자 초임 삭감 등이 그러하다. 인권은 '효율'의 잣대로 좌지우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권'보다는 '경제'를 중심으로, 정작 일상에서 생동하는 '사람'을 소외시켜가며 사회를 재구조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수록 팍팍해지는 분위기 내에서

는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 말하는 건 더욱 더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말은 할 수는 있더라도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기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 내 인권·차별 감수성은 점차 흐릿해질 우려가 생겨질 수밖에 없다.

인권은 문화적인 것이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인권뿐 아니라 다른 이의 인권에 대해서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은 한 사회를 아우르는 문화이자 개개인의 소소한 습관에서 비롯된다. 이에 올 한해 민우회 반차별 활동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 내 차별 및 인권 문제들에 주목하여 사례 수집 및 대응을 통해 무감해지고 있는 일상 속의 차별·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로 펼쳐질 것이다. 인권위에 대한 무분별한 조직축소방침 등 인권마저 삽질하려고 하는 현 정부 하에서는 일상 속 차별·인권 감수성 높이기 활동이 쉽지 않겠지만 그렇기에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배려하는 문화는 대중 캠페인을 통한 인식 고양 활동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인권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진 정책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인권위가 정부 정책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독립성이 보다 확고해질 필요가 있다. **안**

강선미(풀) ● 산책을 하기에 기꺼울 봄
그리고 반가운 메시지를 기다리며 (아, 김밥은 내개! ♡)

● <군내 인권피해자 권리보장,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2008년 '군내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했던 <군내 스토킹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군내 인권 피해자 구제 절차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군내라는 특수한 조직을 상대로 한 투쟁의 기록과 그 속에서 군내 피해자 구제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2월 17일, 여성플라자



● '되풀이 되는 여성 노동 위기 대안은 없는가' 토론회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비정규직 비율은 고착화 되어 가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별해소 효과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노동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를 이유로 또 다시 되풀이 되는 여성노동 위기- 최저임금과 비정규직법 개정 등-의 현실이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경제위기 해법과 정책대안 1)고용창출 효과가 큰 경기부양책전개 2)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사회환경조성 3)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3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 '故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 기자회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문화미래라이프, 서울여성노동자회, 언니네트워크, 서울여성전화 는 3월 18일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앞에서 '故 장자

연씨 죽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여성단체 긴급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연예계의 여자 연예인 성상납 관행에 대한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또 다른 죽음을 만들지 않으려면 수사당국은 이 사건에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수사당국은 여자 연예인들을 성상납하고 죽게 했었던 그 동안의 관행과 권력사슬을 명확하게 수사해 나가야 하며, 밝혀지는 사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3월 18일, 분당경찰서 앞

● [MB 1주년], 검은 옷을 입은 그녀들이 떴다!

MB정권 1년이 되는 날, 검은 옷을 입은 민우회 상근활동가들은 망원역으로 향했습니다. 횡단보도를 '왔다갔다' 하고, 거리를 걸으며 MB정부가 우리를 얼마나 위협에 빠트리고 있는지 MB정권 1년 핵심성과(?)인 '시민에 대한 공권력탄압/인권박탈/용산참사/경제위기/실업자 대란/민주주의 후퇴/역시 퇴보/여성정책 실종'의 내용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월 25일, 나루-망원역-횡단보도-망원시장



● 3.8 세계여성의 날, "여성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없는 행복한 세상"

101번째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한 한국여성대회가 청계광장에서 있었습니다. 민우회는 '집시법'반대를 표현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썸그라스와 모자를 눌러쓰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8 여성선언'을 통해 "최악의 경제위기 하에서 실업과 경제파탄으로 절망하는 시민들, 사교육비와 교육 양극화에 신음하는 학부모들, 차별과 폭력에 고통 받는 여성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관참은 일자리 100만 개 창출, 부자감세 반대, 교육복지 확대, 민주주의 수호, 여성인권 보장'을 실현하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올해의 여성운동상'에 한국여성민우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수상하게 되어 더욱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3월 8일, 청계광장



● '경기보조원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해고와 폭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

88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여성노동자 58명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폭행까지 한 사건에 대해 88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위탁을 한 국가보훈처에 해결을 촉구하고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그리고 88관광개발 조합원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부당한 집단해고와 차별도 모자라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폭

행과 폭언을 가하는 위탁회사 88관광개발주식회

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국가보훈처에 책임 있는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3월 10일, 국가보훈처 앞



연쇄살인범을 잡으려다 우리가 놓친 것

권김현영 ●



연쇄살인범의 여성혐오

연쇄살인범이라는 말을 창안한 것으로 알려진 FBI 내 심리전담반인 엘리트행동과 학연구소의 로버트 레슬러는 연쇄살인범들의 80% 이상이 중산층 이상의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은 성도착자들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런 식의 연쇄살인범의 특징은 사실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도착이라는 혐오발화는 성적소수자 전체를 궁지로 몰아넣고, 국공립보육시설이 7%도 채 되지 않는 한국의 양육현실은 외면한 채 마치 냉담한 어머니가 문제라는 왜곡을 만들어낸다. 더군다나 연쇄살인범의 표적이 되는 성매매 여성들이 처한 환경이 살인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현실 역시 은폐시킨다. 유명철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의 어린 시절의 불행이나 아내와의 불화가 범죄를 저지르게 한 심리적 문제를 낳게 했다고 보도되었고, 부르는 사람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이 어디든 갈 수밖에 없는 출장 마사지사 여성들이 놓여진 사회적 위험이 강조되기 보다는 그 여성들에 대한 도덕적 단죄가 이루어졌다. 강호순은 자신의 살해동기를 '여성혐

오'라는 말 한마디로 설명하고 언론은 그것을 그대로 대서특필했다. "여자만 보면 살해충동"이라는 검고 굵은 글씨는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여성혐오의 원인은 다시 여성혐오로 돌아온다. 여성혐오가 그 자체로 사악한 일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강조되지 않았다.

사이코패스라는 말에 감춰진 사악함

한국의 언론들은 여전히 연쇄살인이 일어날 때마다 연쇄살인범에게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이코패스'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지만, 외국의 전문가들은 이미 전문용어로 설명하는 것을 포기하고 흔하게 쓰이는 단어인 '사악함'이라는 말로 이런 범죄를 표현하고 있다. 2001년 미국정신과의사협회 발표장에서 뉴욕대의 마이클 웰너 교수는 사악함을 '나약한 이들에게 감정적 상처를 주고 그들을 위협의 대상으로 삼아 고통을 가하고 그러한 모든 행동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의향'으로 정의했다. 요점은 연쇄살인범이 얼마나 악마 같은 지는 그가 가진 어떤 지역적 성적 계급적 특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악한 사람을 괴롭히는데 쾌락을 가진 인물이라는 데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종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수치스럽고 사악한 일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라지곤 한다. 그리고 그런 핵심이 사라진 결과 우리는 연쇄살인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연쇄살인범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자들은 더욱 더 밤길을 무서워하게 되고, 남자들은 더욱 더 큰 소리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당당히 요구하며, 성적 취향의 다양성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것이 된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연쇄살인범의 프로파일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검열하고 타인의 행동을 감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비명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희생자였던 군포 여대생의 가족들은 경찰조사가 발표되자 “우리 아이는 남 차 함부로 탈 아이 아니다”며 분노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은 행실이 매우 바른 아이였다”며 “어디 20살 넘는 아이가 남자 차를 함부로 타겠느냐”며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도 ‘엄마 딸 바르게 잘 컸지? 그

러니깐 이렇게 잘 컸지’ 하고 말할 정도로 행실이 바른 아이였다”고 말했다며 경찰의 보도에 분통을 터트렸다.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명예롭게 지켜내기 위해서 딸이 연쇄살인의 표적이 되곤 한다고 알려진 ‘그런 여자’들과 동일시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여자’들이 죽었을 때 사회는 애도는 커녕 동정과 연민조차 보여주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족의 분노는 곧 강호순의 얼굴 공개 요구로 이어졌다. 하지만, 삶뿐만 아니라 죽음에까지 드리워진 낙인에 대한 공포가 범인의 얼굴 공개라는 다른 방식의 낙인찍기로 과연 해소될 수 있을까.

사악함의 정체는 약자혐오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지는 여론은 자신을 형사와 동일시하는 마음을 반영한다.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강화연 쇄살인범을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고 말할 때, 영화를 보던 나는 ‘미치도록 잡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범인을 쫓는 그가 부러웠다. 나는 그저 내내 ‘미치도록 무서웠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 중 누구를 믿어야 할 지 알 수 없어 막막했다. 마피

아 게임에서처럼 모두 형사인 척 하지만 모두 마피아인 것 같았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서로 공모해서 서로를 죽이는 상황에 놓여 시민의 승리는 좀처럼 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사악함과 싸울 수 있으려면 정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사악함의 정체는 그가 가진 배경과 특징 때문이 아니었다. 강호순은 여자들이 얼마나 쉽게 차에 올라탔는지를 설명하며 비웃었다. 그는 여자들을 죽일 때 거의 힘이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체를 묻기 위한 고역을 최소화하면서 고인에 대한 어떤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 그 사악함의 정체는 약자를 혐오하고 소수자를 미워하는 데에서 쾌락을 얻는 바로 그 마음에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감시와 더 많은 처벌이 아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정이입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악함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잊은 채 사악한 자의 얼굴을 보려고 하고 있다. 괴물의 얼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역시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일 뿐일 텐데도. 무서운 일이다. **망**

권김현영 ● 민우회 집 <마포나루>와 딱 100미터 거리에서 5명의 비혼 여성들과 2마리의 고양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도통 밤길 무서운 줄 모르고 다닌다.

철학노트는 190호(2009년 3~4월호)부터 새롭게 신설된 꼭지입니다. 혼란함의 시대에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돌아서 대안에 대한 다양한 중얼거림과 시선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



노성숙 ●

날씨만 황사로 우중충한 게 아니었다. 머릿속에 한 가득 희뿌연 한 흠먼지가 날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유독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우울할까?”, “도대체 행복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길으로 딱히 표현한 적은 없지만, 이런 질문들을 혼자 중얼거리 본적이 있는가? 자, 이제 당신들은 철학자가 될 수 있는 출발지점에 서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들이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자.

길거리에 즐비해 있는 화려하고 사치스런 광고 속 이미지들은 우리로 하여금 늘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새로운 욕망들을 부추기며, 새로운 구매리스트를 작성하게 한다. 좀 더 멋진 옷과 장신구, 좀 더 비싼 명품백, 좀 더 편안하고 멋진 자동차, 좀 더 큰 TV, 좀 더 큰 아파트...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갖고 싶은 욕망이 충족됐다고 하자. 예를 들어 평면으로 된 TV를 장만했다. 그럼 이제, 행복한가? 물론 잠시는 만족스럽다. 그러나 이내 사이즈가 조금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생겨난다.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더 큰 것을 장만한다. 그런데 이왕이면 음향시절도 좋아서 홈시어터의 기능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홈시어터 기능의 TV를 장만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모델의 색깔에 사로잡히고 나면, 곧바로 그것으로 바꾸고 싶어진다.

왜 원했던 물품을 구입해서 결핍되었던 욕망이 충족되었는데도, 잠시 행복하다가, 또다시 불만스럽고 싫증이 나면서 좀 더 다른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철학이 제공하는 위안, 철학의 치유책은 조금은 색다르다. 왜냐하면 철학은 좀 더 극단적으로 인간의 욕망에는 한계가 없다는 성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결핍된 욕망을 충족시키자마자, 우리는 계속 “좀 더” 강도 높은 그 다음 단계의 쾌락을 욕구한다. 따라서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역설적 이계도 더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쾌락의 역설을 잘 이해한 철학자가 에피쿠로스이다.

흔히 그가 대표적인 쾌락주의자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부~자되세요!”의 행복, 즉 쾌락의 행복은 그가 추구했던 즐거움과 같은 것이 아니다. 물론 그가 추구한 것이 우선적으로 ‘고통, 공포, 결핍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가 말한 헤도네(hedone)는 흔히 번역되는 것처럼,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쾌락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밖으로 향하면서 광고 속에 보인 술한 유희의 현란하고 사치스런 모델의 이미지를 조금씩 모방해가는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각자 자신의 내면세계로 눈길을 돌리고, 남이 대신해주지 않는 자신만의 사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박한 즐거움들이다. 이와 같이 에피쿠로스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 마음의 술한 동요에서 해방되어 누리는 고요함, 즉 아타락시아(ataraxia, 평정심)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쓸데없는 걱정들의 동요와 우울함을 다스리는 데에는 자신의 내면을 찬찬히 이성적으로 돌아보면서 분별력을 발휘하는 것, 즉 인간에게 고유한 지성을 활용하는 철학적 사색보다 더 좋은 처방은 없다. 그리하여 생각의 힘을 기르고, 자신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게 되면, 늘 반복되는 광고가 불러일으키는 사이비 욕구, 별 생각 없이 퍼붓는 남들에 대한 소문들, 사소하지만 유독 자극적이었던 나를 향한 비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생겨난다.

그런데 가끔은 혼자만의 사색만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외롭다. 그 순간 우리는 주위를 둘러본다. 도대체 이러한 힘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의외로 너무도 평범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 고민거리, 고통과 씨름하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깊은 사색 속에서 곱씹고 새롭게 이해하고자 시도하면서, 진정한 작가와 철학자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작가나 철학자들이 삶의 난제들을 단번에 시원하게 해결해 주거나 정답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깊은 통찰력과 지혜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고통과 힘들을 새롭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그 도움으로 고통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이 견딜 만해질 수는 있다.

기원전 306년 에피쿠로스는 친구들과 아테네 근교로 이사해서 함께 살기 시작했고, 그곳을 ‘정원’이라고 불렀다. 다른 사람들은 그곳을 학교, 또는 공동체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그 정원에서 그들이 누린 삶의 방식이다. 에피쿠로스는 우정이 “한 인간이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혜가 제공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말했고, 자신의 정원에서 그 우정을 가꾸었다. 또한 노예와 여성들에게도 그 기회를 허용했다. 에피쿠로스의 정원에서의 삶은 단순하고 소박했지만,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알려지자, 그의 정원에서 함께 사색하고 토론하며 우정을 나누

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에피쿠로스는 “결핍에서 오는 고통만 제거된다면 감소하기 짝이 없는 음식도 호화로운 식탁 못지 않은 즐거움을 제공한다”고 말했고, ‘사치스러운 이미지의 환상을 경계하라’는 그의 메시지는 그의 제자들에게 의해 돌벽에 새겨지기도 했다. 다시 종합해보자면, 에피쿠로스에게 진정한 행복이자 즐거움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다양한 물품들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내면세계에로의 사색, 마음의 동요에서 벗어난 고요한 자유로움, 소박한 식탁에 둘러 앉아 얘기 나누는 지혜로운 친구와의 대화에 있었다.

경제위기와 함께 왠지 더 우울해지는 요즘,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힘들음 좀 더 근본적으로, 그 뿌리에서부터 이겨내고 싶다면, 진정한 철학자가 되어보자! 사치스럽고 현란한 이미지들의 환상을 깨뜨리고, 그 욕망의 출렁임을 들여다보면서 나만의 고유한 내면세계로 향하는 사색의 여행을 시작해 보자. 그리고 나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가깝고도 먼, 멀고도 가까운 친구들을 향해 새롭게 대화의 문을 열자.

소박한 우정을 함께 나누었던 에피쿠로스의 정원은 그 옛날 아테네 근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이하는 지금 여기, 이 봄의 정원에 있다. 때로 내면세로의 사색에서 느껴지는 힘들음과 외로움을 토로하다보면, 봄 햇살과 같은 친구의 따스함, 그리고 철학자들의 정원에서 수 세기동안 땅 속에 깊숙이 묻혀있던 통찰력과 지혜의 자양분을 접하게 된다. 긴 겨울동안의 추위와 외로움에 떨었고 비록 지금은 황사 비를 맞고 있지만, 이제 나의 생각이 자그마한 새 생명의 싹을 틔우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생각 있는 여성이라야 한다!

자, 여성 철학자들이여, 루미가 노래한, 그 봄의 정원으로 오라. 



봄에는 정원으로 오라

저기엔 술이 있고 연인들은 석류나무에 꽃을 피운다

만일 그대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그대가 온다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산에도 성(性)이 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김희정(희도리) ●



우리가 예산분석을?

이 사업은 2001년 시작됐다. 사업명은 왜 이렇게 긴 건지! 내가 담당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업명이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지방자치단체 + 여성정책 + 예산 분석 그리고 당체 모르겠는 ‘성인지적 관점’ 까지! ‘이런 건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는 여성운동만 열심히 하면 안 되겠냐’는 말을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건 너무 너무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함께 한 민우회 지부들의 활동 때문이었다.

우리는(예산분석을 진행하는 민우회 지부들과 사업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던 민우회 본부) 정말 열렬히 모였다. 성인지적관점이 무엇인지, 분석의 범위인 여성정책을 어디까지 볼 것이고 올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예산 분석을 위한 방법과 분석 항목을 통일하고 파워풀하게 모아내는 방법까지. 알아야 할 것, 의논할 것, 질문할 것, 그리고 지자체와 속 터지는 일들을 나누기 위한 워크숍은 불안과 열정으로 그득했다고 기억한다.

모일 때마다 그간 진척된 예산분석 상황을 나누면서 접두사처럼 하곤 했던 말이 있는데 “가계부도 제대로 써 본 적 없고, 동그라미가 6개가 넘어가면 속으로 ‘일십백천만...’ 하며 되뇌는 내가(우리가) 이 두꺼운 지자체 예산서를 뒤적이며 예산분석을 한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첫째 분석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은 예상대로 빈약했다. 예산규모 중 1~2% 정도밖에 안 되는 비율이라는 사실이 보여주듯, 여성정책은 정부의 기본 항목만을 전달하는 수준이었고, 정책과 예산을 통해 결과적 성평등을 추진해야하는 지자체가 '착한 며느리 되기' 같은 이율배반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예산에도 성(性)이 있다

뭘 몰라 시작할 수 있었고, 예산분석이란 게 쉽지 않았지만, 하면 할수록 동네 여자들이 우리 동네 예산 분석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일단 '성인지적관점'이란 게 말로 어렵지 민우회 여인네들 감수성엔 이미 있는 개념이었다. '같은 화장실을 짓더라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반영해 화장실 숫자와 시설을 다르게 짓는다는 게 성인지적 관점이구나. 여자들이 애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아동용 화장실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1단계라면, 아니 왜 꼭 여자들만 애들 풍오줌을 누어야 하나? 남자화장실에도 아동용 화장실을 넣고 기저귀 가는 편의 시설을 넣으라고 하면 되는 거구나! 동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자들이 유모차 끌고 다니기 걸그적 거림이 없는 도보를 만들라는 것도 성인지적관점이구나.' 우리가 늘 하던 말을 조금 있어 보이게 바꿔하는 말이 성인지적 관점이었던 거다.

우리가 첫째 분석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은 예상대로 빈약했다. 예산규모 중 1~2% 정도밖에 안 되는 비율

이라는 사실이 보여주듯, 여성정책은 정부의 기본 항목만을 전달하는 수준이었고, 정책과 예산을 통해 결과적 성평등을 추진해야하는 지자체가 '착한 며느리 되기' 같은 이율배반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예산분석 자료를 위해 지자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토론회를 열기까지 오만가지 과정도 우리에게겐 살아있는 학교였다.

성인지성 + 지역인지성

예산분석을 두 번째로 진행한 해에는 나름 지역에서 한(?) 분석하시는 전문가들과 만났다. 그러나 공통 예산분석 항목을 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 왜? 우리 동네 여성정책의 특성을 반영하려면 강조해야하는 부분이 달라야했기 때문이다. 성인지성은 기본이고 지역인지성도 함께 논의됐다. 예산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천 활동이 결합돼야 한다는 것도 공감되면서 여성주간행사를 모니터도 했는데, 여성주간(7.1~7)이 단체장 취임한 달과 겹치면서(단체장선거가 5월경에 있고, 취임식을 하는 달이 7월이다) 풀뿌리



내안의 '다중이'

이번 기획은 각각의 필자들이 '여성주의자'로 삶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혹은 일종의 신념을 갖지만 순간순간 드러나는 자신의 다중적인 면모들을 보면서 당황했던 경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거창하게 '○○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계속적인 자기검열과 모순되는 본인의 모습에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싶었다. 이러한 기획 의도는 필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인식했다. 물론 각각의 글들의 어울림에 있어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그것은 철저히(?) 의도된 불협화음을 믿어주길 바란다. 우리는 소중한니까!

그럼 시작해 볼까? 우리들의 '다중이'의 모습을 찾아서-

※ 주의 : 꼭지명에서 말하는 '다중이' 혹은 다중인격은 개그콘서트의 "에드~왈~~드"를 찾던 캐릭터 '다중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또한 정신병의 명칭으로도 사용되는 심리학적 용어인 '다중인격'도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중이'는 내안에서 대립되거나 양면적으로 나타나곤 하는 본인들의 모습들로 인해 당황스러웠던 경험을 나누기 위한 용어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내 안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에게 평화를!

홍미용 ●



피곤한 여성주의자에서 모순덩어리 아줌마로!

80년대 후반, 대학에 들어간 나는 주변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남학생들은 선배건 후배건 동기건 모두 다 내 앞에선 말조심을 해야 했었다.

“○○ 참 이쁘지 않나?”

“여자를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그런 태도 고쳐!”

늘 이런 식이었다.

“짧아진 여학우들의 치마를 보니 봄이 한결 더 가까이 온 듯 합니다.”

따뜻한 봄날! 집회 사회를 보던 선배는 이 한마디로 나와 몇몇 여학생들이 학교 곳곳에 써 붙인 대자보 때문에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만 했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남자들에게 무지막지하게 들이댔던 ‘성평등’이라는 단일 잣대는 사실 내면에서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스스로의 ‘차별성’을 숨기기 위한 자기 방어적인 무기였다. 스스로가 경계에서 늘 흔들리는 나약한 인간이었음에도 자신은 물론 남들에게 이런 내 모습을 들리기 싫어 꾀꾀 숨겨 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서 인정하기 싫은 나의 모습이 자신을 봐 달라고 고개를 숙 내밀 때 느끼는 당혹스러움이란 참 어찌지 못하는 삶의 숙제거리였다.

같이 시위를 잡혀간 여학생이 예쁘다는 이유로 풀려나는 것을 보며 분노보다는 부러움과 질투심이 꿈틀했을 때, 카리스마 있는 마초에게 나도 모르게 끌렸을 때, 날씬해지고 싶어 남 몰래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 학벌 좋고 돈 잘 버는 남자와 결혼해서 힘든 경제활동 따위는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등등 셀 수도 없는 많은 순간 나는 내다 버리고 싶은 나를 만나야 했다.

더구나 결혼, 출산, 육아의 과정은 늘 선택의 기로에서 인정하기 싫은 모순투성이의 내 모습과 직면해야만 하는 경험의 연속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나는 자식의 삶을 자신과 분리해서 생각하고 행동 할 줄 아는 우아하고 지적인 엄마이고 싶었다. 수능 날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험장 교문에 엿을 붙여 놓고 머리를 조아리는 엄마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은근히 비웃기도 했었다. '자식이 뭐 인생의 전부야?' 라며 하지만 얼마 전 딸 아이가 예중 입시를 치루면서 나도 물론 예외가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시험 전 날엔 당사자보다 내가 더 걱정이 돼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불안한 마음을 붙들기 위해 비몽사몽간에 '부처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까지 했다. 시험 당일에는 고사장 앞에서 5시간을 줄곧 추위에 떨면서 아이를 기다렸고, 시험을 망쳐 울면서 나오는 남의 집 자식 앞에서도 무너졌다. 심지어는 합격자 명단에 자신이 없음을 확인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내 아이를 보니 기부금 입학이 있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까지 했다. 나도 내 모습에 놀랐다.

아이 문제로 이 정도니 '성평등주의'는 옛 바퀴 먹은 지 이미 오래라는 건 거론 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라는 인간이 좀 철이 들긴 했다. 삶속에서 행동으로 발현되지 않는 자기주장처럼 허망한 것도 없다는 것을 절감했고, 결혼 전 삶의 토대가 허약하고 머리로

만 치열했었다면 지금은 생활 속에서 많이 강해졌다. 마음의 근력을 키웠다고 하면 좋을까? 또한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겸손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마 내가 딸아이의 입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지적이고 우아한 엄마를 내세우며 많은 엄마들의 과도한 자식사랑을 은근히 무시했을 거다. 물론 자식 앞에 눈먼 이기적인 모성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누군가를 이해하긴 위해선 그들의 입장과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하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다. 그래야 그들을 도울 수도 있고 적어도 '그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내 안의 수많은 모순 덩어리, 나도 인정하기 싫은 내 모습을 인정해 가는 과정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게 해 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나는 다중 인격자!

“엄마는 사람들 앞에서는 상냥한 고양이 같고 집에서는 사나운 사자 같다. 내숭덩어리에 고상하고 우아한 척을 자주 한다. 다른 엄마들처럼 때리진 않지만 한 번 야단을 치면 아주 오래전 일까지 끄집어낸다…… 한마디로 지독하다!”

위 글은 딸이 나에게 대해 쓴 글의 한 대목이다. 오! 마이 갓! 나는 두 번 놀랐다. 아이의 눈이 너무 정확하다는 것과 표현이 생생하고 현실적이라는 것에!

그렇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은 다른 얼굴로 살아간다. 어떨 땐 의도적으로, 또 어떨 땐 오토매틱으로, 일일이 나

열하자면 '천일야화' 수준이다.

아이를 야단 칠 땐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다가 때론 냉정하고 집요한 것이 꼭 죄인 다루는 검사 수준이다. 하지만 전세가 180도 역전돼 아이를 단골 고객으로 맞이하는 세일즈 우먼이 되기도 한다.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본다. '고객(내 아이)'의 불평불만에 민감하고 엄마 역할이라는 '상품'의 품질 평가에 늘 전전긍긍해 한다.

남편에겐 무뚝뚝하고 애교라곤 손톱 밑의 때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물론 잘 웃지도 않는다. 바가지 박박 긁고 잔소리 하고 미해결 사건을 조사하는 탐정처럼 탐문하고 염탐하는 피곤한 마누라가 되기도 한다. 한 때는 비타협적이었던(?) 성평등론자가 돈 때문에 한없이 치사하고 비굴해 지기도 한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와 똑같이 삶에 대해 배우고 있는 그저 똑 같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여 이해심 많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때도 있다. 물론 아주 찰나이긴 하지만**^

글이 좀 잘 써 질 때는 재능 있는 작가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고 10장짜리 원고로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때는 세상에 써먹을 능력이라곤 눈을 씻고 봐도 없는 무능력자가 되어 버리기도 한다.

밖으로 나오면 사정이 좀 달라지긴 해도 그래도 마찬가지로. 보들보들하니 부드럽고 남 얘기도 흥미롭게 잘 들어 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긍정적이고 경쾌하고 싫고 좋고를 명쾌하게 표시 하는 사람일 때도 있다. 하지만 부탁을 거절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 일 때도 있고 남들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 받는 뒤 끝 많은 쫄쫄한 인간 일 때도 많다.

이 밖에도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세상에 없는 낙천주의자가 되었다가 우울한 비관론자가 되기도 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승리자가 되었다가 우울하고 비참하고 버림받은 희생자처럼 행동 할 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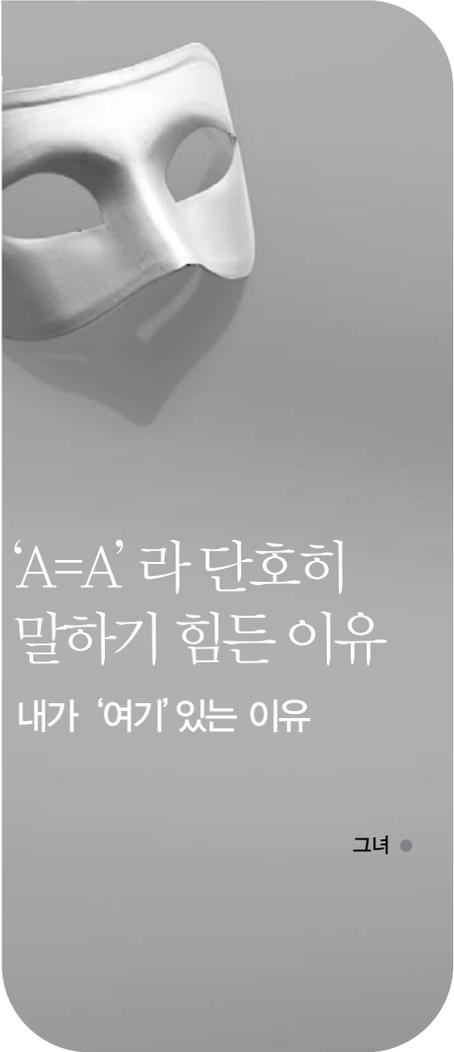
내 안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에게 평화를!

난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다른 수십 가지의 모습으로 '변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솔직히 말하자면 일관성 같은 건 별로 없다. 그래서 괴롭다. 보기 좋은 내 모습은 스스로 쉽게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맘 속 어딘가 깊은 곳에 꽂꽂 숨겨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 나오면 수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괴롭다.

그러나 나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 인간의 온갖 다양한 모습(때론 추악한)이 모두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맘 편하게 받아들이고 인정 할 때만이 삶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그래야 선택의 순간에 경계의 흔들림 없이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잘 살아 갈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를 오가며 살고 있는 걸 아닐까? 내가 가진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잣대에 부합하지 않는 추한 모습을 맘 속 어딘가에 꽂꽂 눌러서 숨겨두지 말자. 내 안의 하이드씨에게도 햇볕을 보여주자. 꽂꽂 숨겨두었다간 곰팡이 나서 썩기 십상이다. ☹

홍미용 ● 40이 넘어 철들기 시작한 아줌마.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에 충실하게 살기위해 노력하는 중.



‘A=A’ 라 단호히
말하기 힘든 이유
내가 ‘여기’ 있는 이유

그녀 ●

내 게 있어 여성학은 내가 불편하거나 분노하거나 궁금해 했던 것(성역할 따위의)들이 사실은 매우 정교하고도 지독한 역사성을 갖고 이어져온 것들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이론화 되어있어 나의 논리의 근거가 되어줌에 감사함을 표해야하는 무엇이었다. (난 나의 선택과 나의 생각이 진정 나의 선택과 생각일까에 대해 아주 일찍부터 고민하였다. 여성학은 이 고민에 답이 되어주었으며, 나를 사회학으로 인도하였고, 여성주의라는 ‘뺨’을 선사하였으며, 지금에 나를 있게 한다.)

지금은 언제?

지금, 여성주의는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런 불편함이 나는 싫은가? 응. 나는 싫다. 그 이유는? 피곤하다. 하지만 내가 여성주의를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진심어리게 이해해 보도록 길을 내어주어서이다. 그렇다면 나는 나를 이해했는가? 아니, 그것도 확언할 수 없다. 다만 이해를 시작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더없는 기쁨이라는 것 밖에는 모른다.

이전에 나는 나를 궁금해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나의 욕구나 나의 바람 따위를 타인의 시선에 끼어 맞추었다. 나는 사랑받고, 관심 받고, 인정받고 싶었다. 그러려면 난 착한 딸, 동생, 친구가 되어야 했다. 어릴 적 그 모습은 그냥 그러한 욕구에서 만들어진 나의 모습일 뿐이었다. 그러던 내가 나를 진심 어리

게 살필 수 있게 된것은 여성주의를 알면서부터다. 그래서 나는 불편하지만 여성주의적 삶을 살기위해 버둥버둥 한다.

이처럼 여성주의는 나를 '나' 로 바라보게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다중적인 나를 만나게 되었다. 그 순간 여성주의는 나를 곤란하게 했다.

내안의 '다중이' 를 만나게 되는 일은 나의 몸 혹은 상황에 따라 나에게 부여된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가운데서 일어난다.

길진 않지만 나의 공식적인 여성주의자 선언이 있는 후 삶에서 몇 번의 고비가 일상적으로 있었드랬다.

#. 난 습관성구토증에 시달리던 때가 있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살이 찌가는 나의 몸을 좌시(?)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여튼 그게 싫으니까! 그 이유가 마르고 늘씬한 몸을 '아름답다' 여기는 그들의 기준 때문임. 그것이 문제임을 알면서도 나는 그들의 '아름다움' 에 나를 맞추곤 했다.

미친 듯이 먹고, 토한다. 난 맛있는 걸 먹고 싶지만 먹으면 살이 찐다. 살이찌면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누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 음- 생각컨대 고민해 보면 타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싫은 게 되어 버린다.

하지만 나는 마른 몸을 욕망하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는다. 건강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를 이유로 들지만 이러한 고민은 지극히 타인에 의한게 아닐까 또 다시 고민하게 한다.

#. 나는 1년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소위 클래식바라 명명되는 곳에서 바텐더 일을 했다. 물론 누구는 우리를 바텐더라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일하던 공간에서의 역할은 거친 언어로 말하면 종종 나를 너무 상품화하다 못해 내가 무얼 하며 이 공간에 서 있는지, 내 앞에 앉아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나를 무엇(?)으로 여기는지 괜히 고민하게 했다. 바텐더로 일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거창한 이념과 가치관의 이야기를 구지 꺼내지 않고서도 일 할 수 있으며, 꺼내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바텐더가 아닌 다른 상황과 역할에서의 나는 여성주의를 말했다.

어느 날 내가 보였다. 어두운 조명에 가볍지 않은 화장을 하고, 예사롭지 않은 검은색 재킷과 치마를 입고 하이힐과 야릇한 미소로 포장된 웃음을 띤 내가 말이다. 이제는 이 공간에서 내가 찾았던 즐거움, 여러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바텐더의 경험은 나를 전문적인 조주사로의 삶을 살아볼

까? 하는 또 다른 길을 고민하게 해주기도 했고, 미숙하나
 마 내가 내 입맛에 맞는 카테일을 만들 수 있다는 즐거움
 을 줬다. 물론 손님들의 다수가 나를 힘겹게 한 것도 아니
 고, 일 년보다 조금더를 바텐더로 살게 한 것에는 그만한
 매력이 차고 넘쳤다. 공부를 하면서 꽤나 자주 술을 마시
 며 일하는 삶을 견딜 수 있을 만한 매력이 있었으니까(나
 는 학생과 바텐더의 역할을 같이 했다).

유연화된 개념정리

이렇듯 타인이 요구하는 '나' 와 내가 원하는 '나' 의 경계
 에서, 혹은 내가 원하는 내가 진정 그러한지, 혹은 그들의
 요구와 원하는 나를 맞추기 위해 거듭 노력하곤 했다.

마른 몸을 위해 습관성구토증에 시달렸고 아직도 늘씬한
 몸을 희망하지만 난 여성주의자라고 말한다. 또한 나를
 상품화시키던 공간에서 '나' 를 버리고 있다. 다시 '나' 를
 보게 되었다.

나는 줄타기를 아슬아슬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줄이 꽤
 나 튼튼했던 것 같다. 그녀(여성주의를 고민하는)들을 알
 게 되고, 그녀들과 나의 공통분모에 쾌감을 느끼며, 끝없
 는 수다를 떨거나 고민을 나누거나 털어놓거나 했던 경험
 이 나를 '그런 일들' 을 겪은 후에도 '여기' 에서 여성운동
 을 계속하게 했는지 모른다.

아직도 많이 헤매이고 있고, 헤매고 싶고, 아직 꼬리를 물
 고 쫓아오는 지우고 싶기도 한 몇몇 과거도 있지만 그래

도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당신네들이 있어줘서라고
 전하고 싶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
 며, 이리도 행복감에 젖어있을 수 있는 건 토닥토닥해주
 던 당신들 덕이라고!

이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A=A고 B=B' 라는 이
 성적인 언어로 정리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여성주의라
 고 해서 일정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
 도 없지 않을까?

우리는 언제나 분열과 딜레마적인 '나' 를 만나지만 그것
 들을 다 받아드리고 견뎌내면서 언젠가 조금은 덜 피곤하
 고 상처받지 않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선 그녀
 들과의 계속적인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
 며 글을 정리할까한다.

나는 대체 무얼 말하고 있는거지?

지금도 줄타기중인 나의 '다중이' 에게 반갑게 인사할 수
 있기를. 괜한 고민에 질책하지 말고 스스로 토닥여주자.
 우리들의 '다중이' 에게!

그녀는 여성단체에서 일한지 벌써 한 달하고도 13일! 2월
 에 처음으로 맞는 금요일에 바람이 이렇게 몰었다. '어때
 요?' 난 설렌다고 말했다. 난 계속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우회에 와서 나는 셀레이니까. 

그녀 ● 매달 마지막으로 맞는 금요일에
 그녀에게 물어주세요. '요즘 어때?'
 난 이렇게 말할거야. '응! 난 아직도 설레♡'



모순과 분열은 창조성의 원천이다!

권수현 ●

돌 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언젠가 “‘정의’ 라는 개념은 때로 무의미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미묘하고도 복잡한 울림을 남기는 말이다.

요즘 한국의 정치 상황을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혐오스럽기 그지없다. 데이비드 하비는 지난 30년간 패권을 장악해왔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일컬어 특권층을 위한 ‘계급 복원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바 있다. 구태여 분배적 정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고난을 기반으로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너지는 광경을 매일 보고 있노라면 분노를 넘어서 참담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욕망의 가치가 도덕과 정의의 가치를 압도해 버린 작금의 정치적 상황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방식의 정치적 화법과 사유의 틀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진보 정치의 존재론적·도덕적 기반으로서 ‘정치적 올바름’의 사유 및 실천 방식에 대해서 말이다.

나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서로 연결된 두 가지 지점에서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다. 비판적 지식인 혹은 활동가로서, 첫째 “어떻게 사회에 말을 걸 것인가”, 둘째 “자신의 인식론적·존재론적 기반을 어디에 둘 것인가”하는 점이 그것이다. 내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계기 중 하나는 현 정부 집권 이후 경찰의 태도이다. 촛불 집회와 용산 참사에서 극적으로 가시화된 바, 그동안 서로 긴장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경찰과 검찰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놀라울 정도로 호흡을 척척 맞춰가면서 집권 세력의 도구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여기서 나의 눈길의 끝었던 것은 철저하게 권력에 동일시하는 경찰의 태도였다. 어쩌면 이는 한동안 ‘진보 정치 세력’으로부터 도덕적 비판과

단죄를 받아왔던 사람들의 '피해의식'이 응축된 '대동단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던 것이다.

개혁과 진보에 대한 대대적인 반발 현상은 개혁 기반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 사회가 도덕적·정치적 자정 능력을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싸움이기도 하다. 하지만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에서 이러한 반격은 비판적 지식인·활동가들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공포로 다가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이는 비판적 사회 운동 방식이 한국 사회에서 타자와 주변인에 대한 감수성과 인지 능력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인식론적·도덕적 우월감에 기반을 둔 계몽의 정치는 대상을 혼계하고 단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계기로 상대가 자신의 사고와 위치를 성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 '승자독식'의 서사가 난무하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타자화되고 주변화 된 사람들의 '인간다움'을 가능케 할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나를 포함하여 대학에서 여성학을 가르쳐왔던 동료들이 풀지 못하는 숙제이기도 하다.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서둘러 정답을 내리고 제시하려는 성급함에서, 그리고 진보/보수, 좌파/우파의 이분법적 대립각에서 벗어난 사유와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진보 대 보수, 좌파 대 우파의 이분법적 이념 대립의 자장 안에 갇혀 있었고,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이는 주어진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미들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과 인식론적 자기 확장 능

력(즉 소통의 능력)을 마비시켜왔다. 이념의 과잉은 개념의 과잉을 만들어내고, 과대 포장된 기표로서 작동하는 개념은 온갖 기의들을 빨아들이고 축적하면서 사람들의 사유 능력을 제한한다. 이 거대한 질주의 드라마 속에 철저히 무력하게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이 이념과 개념의 과잉과 범람이 야기한 사유 능력의 마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도덕적 정답과 명분만으로 '사회에 말 걸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건 내 경험을 돌아보더라도 분명하다. 나에게도 여성운동을 하면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자기 검열의 잣대는 운동의 동력인 동시에 사유의 블랙홀이기도 했다. 여성주의 활동가로서 살았던 30대는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뜨거울 수 없었던' 치열한 시간들이었다. 그 뜨거움과 치열함에 대한 기억은 지금 내 안에서 또 다른 사유의 원천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치적 올바름'을 둘러싼 무엇이 나에게 '정치적인 것'에 대한 사유와 활동을 교착상태에 이르게 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 서경식(디아스포라 존재론), 글로리아 안잘두아(in-betweenness), 다나 해러웨이(사이보그 존재론)에서 주목하게 된다. 내 방식으로 이들의 논의를 번역해 보자면, 이들의 공통점은 '소속(belonging)의 정치'를 거부하면서 그 사회에서 불안정하고 모순적인 존재들, 중심과 주변의 경계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저항과 전복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경식의 경우, '재일조선인'이라는 불안정한

혼종적·양가적(in-between) 위치를 고수하면서, ‘국민’의 바깥에서 살아온 사람, ‘국가’, ‘국민’, ‘우리’, ‘고향’이라는 단어에 불편하고도 어색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의 경험 세계를 새로운 변화의 참조지점으로 삼고 있다. 그가 ‘재일조선인’이라는 ‘반(semi)-난민’의 위치를 고수하는 이유는 그 위치에서만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순과 불안의 공간인 양가적 위치는 어쩌면 가장 보수적인 귀속 지향성을 일으킬 수 있는 지점이다. 중심에 진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원과 가능성을 가진 중산층이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될 수 있듯이 말이다. 내가 그의 논의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그의 독특한 화법 때문이다. 그는 정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쪽과 저쪽의 경계 공간에 고집스럽게 머물면서 자신의 역할을 양쪽에 ‘질문을 던지는 자’로 설정한다. 그는 한국과 일본 어느 한쪽에 귀속되길 거부하면서 그 대신 “‘국민’이란, ‘우리’란 무엇인가?”, “‘고향’은 어디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한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타자 혹은 주변인을 생산하는 장치로서의 ‘국가-국민’의 틀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위치가 갖는 존재론적·인식론적 긴장과 모순적 가능성을 예민하게 의식하되, 그 위치에서만 보고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 그것은 치열함이 요구되는 정치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깨달음이란 이쪽과 저쪽의 경계 영역에서 발생한다.” 언젠가 신문에서 불교 사상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이 문장에 확 꽂혔던 적이 있다. 좌우의 이념적 대립각의 바깥에서 사유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를 탈정치화하지는

말이냐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제안하는 사유의 방식은 그 경계의 공간은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의 공간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철저하게 주변적이고 타자화된 존재들의 경험세계를 준거 틀로 삼되, 양쪽 모두를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누구나 당연하고 자명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에 질문함으로써 그것을 낯설게 만드는 것. 서둘러 정답을 내리기 보다는 모순과 불안, 혼란의 경험에 주목하고, 그것을 새로운 정치적 발화의 지점으로 삼는 것. 어쩌면 지금은 그러한 정치적 화법과 인식론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싶다.

한국 사회가 ‘탈취에 의한 자본 축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대중과 지식인의 탈정치화가 아닌가 싶다. ‘세계화’, ‘선진화’ 등 세련된 수사로 포장된 폭력 기제에 대해 더 이상의 사유를 멈춘다면 그것이야말로 위험 사회의 징후가 아닐까. 별교의 <태백산맥 문학관> 건물 외벽에서는 “문학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는 조정래의 글이 새겨져 있다. 한편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 인간과 자연에 행하는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 ‘정치적인 것’의 사유와 실천 방식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된다. ‘정의’라는 것,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이 자명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질문을 통한 끝없는 사유와 실천의 과정이므로. ㉞

권수현 ● 최근 열공을 위해서 짧은 컷트 머리를 했다. 결국 꽃샘추위 바람에 감기와 신경전 증 있다.

관료법관들에 의해 위협받는 사법독립

하승수 ●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초
불재판에 개입했느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나는 개입
한 것이 분명하고, 그것도 심각하게 개입했다고 생각한다.
컴퓨터로 사건을 자동 배당 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굳이 초
불 관련 재판만 따로 떼어내서 특정 법관에게 몰아주기 배
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재판결과에 개입하려 한 것이다. 어
느 판사가 어떤 성향인지를 감안해서 재판을 배당하였다
면, 그것 자체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게
다가 이메일 등을 통해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본인은 '사법행정' 차원에서 그런
게 하였다고 변명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에 재판결과
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히 엿보인다.

게다가 신영철 대법관은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속에서
대법원장의 의중을 거론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말 심각
한 일이다. 실제로 신영철 판사는 그런 일들을 한 이후에
이용훈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서 대법관이 되었다. 정황
만 가지고 본다면, '충성심(?)' 을 인정받아 대법관이 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도 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더 큰 문제는 이번 일이 단순
히 한 개인의 일탈행동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은
사법의 독립이 법원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
의 징조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사법이 독립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법부의 관료화가 심해지면서 법관들이 위의 눈치를 보
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법관에 대한 평가를 법원
장이 하는 법관인사제도는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평가를 받는 입장에 있는 법관들이 법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10년에 한 번씩 재임용
을 받아야 하고, 승진도 해야 하는 판사들이 재임용과 승진
에 영향을 미치는 상급자의 평가로부터 초연하기를 기대
하기는 어렵다.

사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것도 아닌 법관들에게 재판권이
라는 엄청난 권력을 쥐어준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
히 위험한 일이다. 자칫 잘못하면 그 사법권이 '스스로 독
주하는 권력',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 으로 변질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수의 관료법관들이 사법권을 전횡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
다. 이번 신영철 대법관 문제는 그런 위험성이 단지 우려만
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법의 독립은 사법의 민주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사법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그리고 사법부 내부의 관료
법관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
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법민주화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

하승수 ●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제주대학교 법대 교수

법관의 독립과 헌법의 명령

송호창 ●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그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또 그렇게 덮여지면 사태는 최악이 될 것이다. 사법부 전반의 문제를 해명하고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신대법관의 행위가 일반적인 사법행정작용인지 아니면 법관의 재판권 침해에 대한 해석이다.

신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대법관의 이메일 메시지에 나오는 특정 문구만을 따서 ‘정상적인 사법행정작용’이라고 강변한다. “현행법대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표현만으로 보면 일견 맞는 말인 듯도 하다. 그러나 도마뱀의 꼬리 한 조각만 가지고 우리는 도마뱀이라고 하지 않는다.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전체를 보아야 그것이 도마뱀인지 도롱뇽인지 구분할 수 있는 법이다.

신대법관은 ‘야간집회관련’이란 제목으로, 야간집회 참가자 사건 담당 판사들만을 모아 ‘일반적인’ 발언을 그것도 수차례 이메일, 전화, 사적 대화를 통해 전달했다. 신대법관의 항변은 도마뱀의 얼굴과 다리 몸통을 모두 두 손으로 가리고 꼬리만 보여주면서 우기는 것이다. 당시 신대법관의 이메일을 받고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던 판사들은 이 해명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사람은 어느 한 가지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자신이 목표로 삼은 것 이외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주변 현상을 온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자신의 시각과 다른 생각은 납득을

하지 못한다. 직장 여자 동료에게 친하게 잘 지내보자는 의도로 음행을 범했을 때 그 행동이 ‘성희롱’인지 아닌지는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기본이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아무리 선의였다고 강변해도 성희롱은 성희롱일 수밖에 없다. 신대법관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 행위를 해석한다. 이것이 그의 해석방법이고 그것은 곧 재판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당신이 사건의 당사자라면, 피고인이라면 신영철 대법관 이름의 판결을 받아들일 것인가. 신대법관이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하급심 법관들이 의문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사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3명 이상의 법관이 신대법관의 재판권 침해에 항의하며 법복을 벗었다. 만약 신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문제를 제기한 판사들이 징계를 당하거나 본질적인 사법부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또다시 엄청난 사법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수많은 훌륭한 법관들이 법원을 떠날지도 모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법관의 독립’은 판사들의 권위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의 명령이다. **㉠**

송호창 ●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실효성 있는 내용도, 비전도 없는 현 정부의 여성정책

권미혁 ●

2월 25일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사회 각 영역에서 평가한 지난 1년간의 이명박 정부 성적표는 초라했다. 여성정책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한마디로 ‘낙제 점수’라고 할 수 있다.

여성정책의 흐름 못 읽어

과거 부녀자 정책이었던 여성관련 정책은 문민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여성정책의 정체성을 확보한 이후 참여정부까지 여성부 신설,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인권 3법(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 제정, 성주류화를 위한 도구 마련(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제도 도입 등), 여성대표성 확대제도 도입(할당제 등)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일정 정도 마련하였다.

여성정책의 흐름상 이명박 정부는 아래 두 가지의 과제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그동안의 여성정책이 제도마련에 힘을 쏟았다면 이제는 이미 마련된 제도들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정책의 패러다임도 남녀평등정책에서 양성평등

정책으로, 그리고 성평등 정책으로 변화해왔고 이 같은 새로운 흐름에 발맞추어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 시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러나 새로이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여성부 폐지를 거론하면서 성평등 정책을 낡은 것으로 치부했다. 여성계의 반발로 여성부는 존치되었지만, 2007년 1조 1,994억원에서 2008년 539억원으로 1년 만에 95.5%가 줄어든 예산 규모와 직원 100명의 초미니 부서로서 현재 여성부는 실질적 여성정책을 전담하기 어려운 조직이 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현재 여성정책은 여성부의 기본 업무인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 사업’과,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시작한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이 주로이며, 사업의 양이나 질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성평등 정책의 실종”, “여성인권 의식과 젠더 거버넌스 부재”, “가족·보육정책의 후퇴”, “구호뿐인 여성일자리 창출”

짧은 지면에 이명박 정부 1년간의 여성정책을(주로 여성부 활동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평가하기엔 지면상 무리가 있지만 다음과 같이 압축된다고 할 수 있겠다. “성평등 정

책의 실종”, “여성인권 의식과 젠더 거버넌스 부재”, “가족·보육정책의 후퇴”, “구호뿐인 여성일자리 창출”.

구호 뿐인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구호만 있을 뿐, 실효성 있는 집행내역이 거의 없다. 2009년에 여성부가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을 위해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 <새일센터> 50개소 중 45개소가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에게 지정한 것으로 기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기능에서 차별성이 거의 없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약속 역시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과연 지켜질지 미지수이다.

잔여복지적, 보수적 관점으로 회귀한 보육, 가족정책

일, 가장 양립정책의 핵심인 가족, 보육정책 역시 잔여복지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회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보육정책에 ‘바우처’라는 시장주의적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자녀양육수당이나 전자바우처는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보육의 시장화·자율화를 재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예로, 현재 저출산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가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산하 ‘저출산인구정책과’로 축소된 것을 들 수 있다. 성평등한 환경이 뒤따르지 않는 저출산정책은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함에도 과(課)의 명칭에

서 보듯 인구정책적으로만 접근하여 보수적 관점으로 후퇴한 것을 알 수 있다.

젠더 거버넌스의 후퇴

이명박 정부 들어 전반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의 협력과 분업을 통한 거버넌스 체제가 주춤하고 있다. 특히 여성폭력정책 등 여성인권 정책은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곳보다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곳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타 사회복지시설보다 잦은 지도점검과 회계 점검, 새올행정시스템의 일방적 사용요구 등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과 행정편의적 방식으로 민관협력 체계는 급속히 약화되어 여성인권 사업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은 전반적으로 보수화, 퇴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맞아 여성비정규직의 양산과 여성생존권이 악화되는 현실은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도리어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여성정책의 실종은 여성의 삶과 관련해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현재 큰 틀에서의 성평등 정책의 비전이 없음이 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제 정부 영역에서의 여성정책은 영영 실종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 여성운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질 때이다. **한**

권미혁 ● (구)권역샘이 벤자민으로 개명했어요.
작명에 힘써주신 분들과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권역샘의 시간은 거꾸로 간대. 품.

MB식의 무리한 개발추진과 과잉진압이 빚어낸 참사

천웅소 ●

조합과 건설사들은 막대한 개발이익! 쫓겨나는 세입자는 '빈손'

이번 참사가 난 용산 4구역은 40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을 짓는 용산의 핵심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삼성물산, 대림, 포스코가 시공사로 구성돼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예상 분양가는 3.3㎡당 3500만원으로 예상되는 소위 노른자 지역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 분양으로 인한 높은 수익 보장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은 낮은 보상과 이주비로 내몰리고 있다. 용산지역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용산 4구역 재개발조합과 건설사들은 2조원짜리 프로젝트인 이 지역 재개발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합에서 이 지역 900여 명의 영세상인과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로 책정한 돈은 70억 원 정도로 당사자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매우 인색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용산은 6개월, 도쿄는 12년

용산 4구역은 2006년 4월 도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뒤

6개월만인 그 해 10월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다. 그리고 2007년 5월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가 이뤄졌다. 통상 사업 인가 기간이 3~4년 걸리는 다른 지역에 비춰보면 용산4구역의 사업 진척 속도는 매우 빨랐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되는 재정비는 다른 철거지역에서도 반복됐듯 부실 보상의 논란과 폭력사태를 불러왔다. 또한 단 16일간의 조사를 통해 주거, 상가 세입자들에게 1,680~2,5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는데 이는 상가 세입자들에게 가계 권리금은커녕 인테리어비용에도 훨씬 못 미치는 돈이었다.

일본 도쿄 롯폰기의 경우 주민 설득에 공을 들인 탓에 지구 지정에서 조합설립까지 무려 12년이나 걸렸고 주민들을 상대로 1,000여 차례의 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번 용산에서는 조합 설립까지 걸린 시간이 6개월, 조합 대의원 대회가 열린 것은 10여 차례에 불과했다. 그 동안 수많은 현장에서 확인됐듯, 개발 과속은 개발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와 불법행위, 보상과정에서의 부실보상과 철거폭력 등 술한 문제들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쯤이면 우리나라의 개발 과속은 위반 수준이 아니라 위험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싶다.



원주민 재정착율 20% 미만,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용산은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이미 입주까지 끝난 재개발-뉴타운 지역에서의 원주민 재정착율을 보면 과연 지금의 개발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실 예로 길음 뉴타운의 경우에는 원주민의 재정착율이 20%에도 못 미쳤다. 10가구 중 8가구가 살던 곳에서 이사를 갔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단순히 원주민들을 살던 곳에서 내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는 그 지역의 소형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고 전, 월세란을 일으켜 세입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럼 그렇게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개발이 끝난 후에는 원주민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집은 많이 생겼을까? 한마디로 아니다. 개발이익을 쫓는 현재의 민간합동 개발 방식으로는 조합이나 시공사 스스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소형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애시 당초 기대하기 불가능할 뿐더러,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소형 주택의 공급비율조차도 각종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집은 계속 공급 되는데, 원주민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은 계속 소멸되는 상황인 것이다.

드라마의 주인공 금잔디마저도 당한 철거용역들의 불법행위

현재 K방송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꽃보다 남자”를 보면, 옥탑 방에서 동생과 함께 자고 있는 주인공 금잔디가 집이 통째로 흔들리는 진동과 소리에 지진인 줄 알고 깨어나, 급하게 문밖으로 나가다 철거업체 직원을 맞닥뜨린다. 이때 철거업체 직원은 ‘지금 이 건물을 부수고 있으니 빨리 짐 싸서 나가라’ 라며 금잔디를 독촉하고, 결국 주인공은 동생과 함께 하루아침에 옥탑 방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만다. 내용 전개에 있어서는 중요한 장면이 아니라 그냥 웃고 넘어갔겠지만, 이는 철거업무를 하러 들어온 철거 직원이 퇴거의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는 전형적인 불법적 상황이다. 더군다나 현실에서의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폭력적이다.

흔히 이러한 불법상황은 현장에서 퇴거와 철거를 구분하지 않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빈 건물을 철거하는 철거 업무와 신체를 다루는 퇴거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장에서는 이것이 경찰과 공무원들의 방조아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즉, 빈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용역 직원이 인명을 다루는 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픽션이긴 하지만, 개발에 있어서 세입자의 권리와 의사가 얼마나 쉽게 무시될 수 있고, 현장에서의 불법행위가 얼마나 쉽게 행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토지구택공공성네트워크¹⁾는 개발현장에서 인명 및 재산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비업체 무자격자 채용 및 불법장비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김성순의원을 통해 발의하였다.



‘제2의 촛불’이 걱정된다? ‘제2의 용산참사’를 걱정해라!

이에 토지구택공공성네트워크는 지난 1월29일 용산참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과 진단을 수렴해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의 목표방식의 개선과 강제퇴거 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뉴타운-재개발 6대개혁 입법안>을 마련하여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뉴타운-

재개발 6대개혁입법안에는 임대주택법,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민사집행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 중 임대주택법과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은 이미 발의되었다. 뉴타운-재개발문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왜곡된 개발 목표를 바로잡아야 한다.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의 목표를 개발이익(수익성) 극대화, 건설경기 부양, 강남대체 고급 도시 개발 등의 왜곡된 목표에서 본래 목적인 “영세한 원주민의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으로 되돌려야 한다.

둘째,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여야 한다.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원주민들은 대부분 영세한 가옥주와 세입자들이다. 우선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소득능력과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저가주택,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확대하고 세입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융자 등의 실질적 이주대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분양원가와 관련해서는 개발과정에서의 부동산거품인 가격인상분을 그대로 분양 가격과 임대보증금, 임대료에 반영하는 현행 가격결정 방식을 분양원가에 기초한 분양가격 결정으로 바꾸며, 임대료 또한 원주민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임대료차등부과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재개발-뉴타운 개발 사업으로 주변 집값이 상승하지 않도록 민간의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되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1) 토지구택공공성네트워크 : 이명박 정부의 토자-주택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55개의 시민-환경-주거단체들이 지난해 9월에 모여서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주요단체로는 주거연합, 전국철거민협의회, 토지정의, 환경정의, 참여연대, 민연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있습니다.

셋째, 개발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동시다발적 이주 수요를 야기하여 주변 전세 값, 소형 주택가격의 상승을 불러오는 과속개발방식을 수정하여 이주 수요를 재개발사업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순환재개발이나 순차적 개발방식으로 개발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광역공영개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한데, 용적률 제고, 도로-공원-학교-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공적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원주민들이 광역공영개발을 선택하도록 하여야한다. 그로인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도시계획에 맞추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뉴타운 개발 추가지정, 개발속도 단축 등의 개발드라이브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넷째, 관할 행정기관의 책임행정 확립과 정치권에서의 재개발 공약 선거약용이 중단 되어야 한다. 민간개발사업인 재건축과 달리 본질상 공공이 추진하는 공익사업인 재개발-뉴타운 개발사업의 취지에 맞게 관할행정관청인 시장, 구청장이 사업주체와 영세 가옥주-세입자등 사이의 분쟁에 적극 개입하여 분쟁을 예방, 해결하는 책임행정을 확립 하해야 한다. 정치권도 보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하는 재개발-뉴타운 공약을 삼가야 한다.

다섯째, 철거용역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국가인권 위원회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강제퇴거 시 관할관청, 경찰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인권기준을 지침화하고 공익사업의실현을위한토지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공익사업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을 부수는 철거행위와 철거현장의 철거민의 퇴거와 격리 등 인명을 다루는 경비업무는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업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단순철거업체가 철거민의 퇴거와 격리 등 인명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법폭력을 일삼는 행위를 근절하고 경비업체의 인명에 대한 안전, 인권 처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관청인 경찰서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하는 등의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 경찰서장의 직무유기행위에 대한 상급단체인 국회의 감시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이라는 SH공사의 광고 카피가 생각난다. 이는 돈을 벌기위한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집을 원래 목적인 살기 위한 집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상기시킨다. 이번 용산참사에서 희생당한 5명의 철거민들은 한나라당의원들의 주장처럼 도심을 점거한 테러범도, 경찰이 주장하는 전문 시위꾼도 아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것에 맞선 평범한 우리 이웃이자 친구, 아버지였다. 다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빌며, 이 글을 빌어 용산참사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함**

천응소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주 업무로는 '토지-주택문제'를 맡고 있습니다.



우린 왜 '아직도' 분노하는가?

문보 ●

“**오** 리 좀 더 솔직해지자요. 아
ㅏ 직 등록금 비싸잖아요?” 학
교 도서관 가는 길목에 웬 현수막 하
나가 내걸렸다. 평소에 행사 안내 현
수막 말고는 우리 목소리가 담긴 현수
막은 좀체 찾아볼 수 없는지라 반갑고
도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그 앞에 섰
다. ‘아직’이란 부사어에 두 눈을 멍
하니 고정시킨다. 이토록 가슴을 후벼
파다니! 사실 팔 걷어붙이고 뛰어다녀
도 모자를 판에 고작 소심하게 분노했
던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
간. 그렇지만 또 다시... 이토록 가슴
을 후벼 파다니! 졸업한 선배들이 떠
나간 자리에 갓 입시지옥에서 벗어난
신입생들이 캠퍼스를 활보하고 휴학
했던 친구는 복학생이 되어 있다. 3월
이면 반복되는 익숙한 풍경 속에 ‘아

직도’ 오지 않는 그것들이 있다. 졸업
을 코앞에 둔 나에게 ‘아직도’ 듣지
못한 말들과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미
스터리 마냥 꿈쩍대지 않는 그것들이
있다. 아직도? 그렇다. 아직도.

이 정부가 들어선 지, 일 년하고도 세
달이 지나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기까
지, 반값 등록금 공약은 결국 지켜지
지 않았다. ‘약속 지켜라’며 목이 쉬
도록 외쳐봤자, 그 분은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새빨간 거짓말만 반복한다. 정
부가 ‘삼짇’ 하는데 쏟아 부을 예산으
로 그때의 약속을 지킨다면 얼마나 좋
을까마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학교를
빠져(등록금을 벌어야) 하는 아이러니
한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한견에
어마어마한 적립금을 쌓아두고 학생

들 대상으로 장사하는 대학이라는 기
업은 연일 부동산자세다. 등록금 동결로
생색낼 뿐이다. 이미 ‘취업학교’로 전
락한 학교가 해줄 수 있는 일이란 고
작 취업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이 전부란 말인가. 학교나 제대로 다
닐 수 있게 해 달라며 울부짖는 친구
들이 ‘아직도’ 많은데 말이다.

엠비호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캠퍼스에는 냉담함이 감돈다. 갈라진 틈을 누군가가 메워주겠지 하며 애써 모른 척 서로에게 침묵하고는 자꾸 어디론가 떠밀려가고 있다. ‘선택’을 ‘필수’로 여겨야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회. 얼마 전, 한 신입생이 학교 커뮤니티에 궁금증을 올렸다. “이 과는 취업이 잘되느냐”



고. 취업난이 파릇한 새내기 고인거리 1순위가 될 정도라니, 이제 막 지켜온 입시지옥에서 벗어났음에도 대학생활을 채 해보기도 전에 취업만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아 니, '아직도' 제대로 된 취업 스펙¹⁾ 없 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사람들 보다는 낫다고 말해야 하나?

점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다. 공무원 시험 준비, 토익, 인턴, 자격증... 등등의 각기 달라 보이지만 결국엔 똑같은 이유로 바쁘 기에. 정작 사라진 친구들을 그리워하 는 나 또한 결국엔 같은 이유를 대고 있다. 필요성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지 몰라 멍뚱하니 있는 꼴이다. 한 단체에서 20대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인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프로젝트를 한다. 초기에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등록금'이라는 것에 동의하 지만 정작 이 주제를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떤 행동을 취해도 돌파할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 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얼마 전, 고통분담 하겠다며 직원들의 급여는 동결해버린 채 대졸 신입사원 의 초임만을 확 줄여버린다는 기가 막 힌 소식을 접했다. 문득, 이름만 들어 도 알만한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첫 출 근을 손꼽아 기다리며 한껏 부풀어있 던 동아리선배의 얼굴이 떠올랐다. 365일 열람실에서 맨 마지막으로 불 끄고 나갈 정도로 늘 열공 모드였던 선배. 술 마시자는 동기들의 꼬드김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단칼에 잘라내 고, 낮은 스펙에 눈만 높다라며 쫓쫓 대는 주변 시선을 무시한 채, 오로지 높은 연봉을 보장하는 대기업에 들어 갈 날만 학수고대했던건만... 누가 선배 의 '간절한 단 하나의 이유'를 그렇게 순식간에 앗아가는가. 대기업에 들어 가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 라는 듯 한 태도는, 바늘구멍 같은 대

기업 입사를 이뤄낸 사람들에 대한 예 의가 아니다. 비록 선배와 나의 지향 점은 평행선을 달리지만, 개인이 느낄 허탈감과 고통을 아래로 전가해버리 는 사회의 무책임성에는 적어도 함께 분노할 수 있을 것 같다. 채 싸워보지 도 못하고 '아직도' 당하고만 있을 수 는 없지 않는가. 또한 한편으론, 4년 간의 '취업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취 업을 이룬 소수의 좌절감이 이렇진대, 그 외의 대다수 학생들은 또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앓이하며 삶을 짓눌러 야 하는지 씁쓸했다.

촛불이 광화문을 물들여 뜨거웠던 지 난여름, 소수였지만 우리들의 문제를 광장에서 함께 고민하려는 열망과 분 노를 안고 학교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선 사람들을 기억한다. 그 분노는 '아직도' 유효하다. **㉠**

모브 ● 감각의 안테나를 바로 세워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요. (민우회에 주파수 고정)

1) 스펙[specification] 신어,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학점·토익 점수 따위를 합한 것을 이르는 말.

낯술의 롱테이크

한 번 걸리면 빠져나갈 수 없다!

김보년 ●

〈낯술〉을 봤다. 상영 시간 내내 계속 웃었다. 몇몇 장면에서는 소리 내어 웃었다. 간단한 인상 평을 써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 '찌질한 남자들이 공상을 부리지만 밉지 않다. 오히려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확인하는 묘한 길티 플레저가 있다' 정도가 되겠다.

그러나 내가 더 얘기해보고 싶은 건 〈낯술〉의 영화적 형식과 마지막 엔딩이 영화적 형식을 배반할 때 주는 어떤 생각거리들이다. 영화적 형식에 대해 먼저 짧게 말하자면 - 〈낯술〉은 고정 화면의 롱테이크를 빈번하게 사용하는데 이러한 '고정-롱테이크'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주인공(혁진)의 처지를 영화적으로 보여준다. 롱테이크가 한번 시작되면 혁진은 여간해서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여기서 먼저 영화의 내용을 잠깐 설명해야 할 것 같다.

주인공인 혁진은 실연당한 백수이다.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마 백수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혁진을 위로해준다는 친구들은 다음날 정선에서 만나자고 하지만 정작 정선에 도착하는 것은 혁진뿐이다. 이제 혁진은 오지 않을 친구들을 기다리며 정선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버텨내야 한다. 무료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술 마시는 것뿐이고 그 사이 일은 점점 꼬여 혁진은 이제 정선을 빠져나갈 수 없다. 영화 속 정선은 일종의 '원더랜드'다. 미궁이라면 출구라도 있지. 영화 속 정선에 출구는 없다. 빠져나갈 법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혁진을 붙잡는다.

재미있는 대사와 이상하게 자연스러운 연기에 웃어가며 영화를 보다가, 몇몇 숏들이 생각보다 길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거의 무조건 롱테이크로 간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노영석 감독이



각본에서 연출, 편집, 음악, 심지어 촬영까지 혼자 다 했다는 것을 떠올려 볼 때 이는 '필연적'인 길아-미장센이었을지도 모른다. 예산이 부족하니 로케이션 촬영은 짧을수록 좋고, 그러자면 촬영 시간을 줄여야 된다. 당연히 카메라 세팅은 적을수록 좋다.

그러나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낮술>의 롱테이크는 영화의 정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영화의 세계관을 오롯이 형상화해낸다. 혁진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시작되는 숏은 웬만해선 끝나지 않는다. '이상한 여자'와 버스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애인 사기단과 회를 먹고, 노래방에 가고, 여관방에서 술을 마실 때, '변태'와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친구의 삼촌과 비닐하우스에서 돼지 갈비를 구워 먹을 때, 강가에서 생선을 구워 먹을 때, 이 숏들은 끝나지 않는다.

혁진은 지금 정선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찾아 왔다. 혁진이 롱테이크의 고정된 프레임에서 숏의 지속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 것처럼 그는 정선이란 장소에서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시간을 버텨내야 한다. 혁진이 마시는 그 많은 술은 어쩌면 맨 정신으로 버티는 것이 힘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낮술>의 고정-롱테이크는 혁진의 상황과 심리를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롱테이크가 끝나는 것은 얼굴 클로즈업이 나오거나 다른 상황이 전개 됐을 때뿐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롱테이크를 인물의 아이레벨에 맞춰서 촬영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이상한 여자와의 버스 장면에서는 버스 좌석을 떼어내지 않는

한 아이레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부감으로 촬영했다) 관객은 혁진의 앞에 마주앉아 있는 꼴이 된다. 관객들은 카메라의 위치에서 끝까지 혁진과 함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 혁진이 아무리 어렵고 민망한 상황에 놓여도 숏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관객은 혁진과 함께 그 상황을 견뎌야한다. 나는 여기에서 <낮술>의 정서적 힘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고스란히 실제 시간으로 통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낮술>의 영화적 재현이 갖고 있는 태도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면 영화의 엔딩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뒤늦게 혁진을 만나러 온 친구는 일이 있다면서 정선역까지만 혁진을 배래다주고 떠난다. 혁진은 마침내 서울행 버스표를 끊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여자에게 붙잡힌다. 혁진은 고민하고, 그 순간 영화는 끝난다. 이 엔딩은 혁진이 결정하는 순간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인상적이다. 이제까지 그렇게 깨끗하게 혁진을 롱테이크로 보여주던 카메라가 마지막 순간에 짧은 혁진의 얼굴 클로즈업으로 영화를 끝내는 것이다. 만약 롱테이크를 사용했다면 혁진의 선택을 알 수 있었겠지만,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혁진의 고민 자체에 방점을 찍는다. 혁진은 과연 서울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 여자는 그냥 구실일 뿐이고 사실은 정선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것은 아닐까. 혁진은 지금 원더랜드 정선에서 이상한 모험을 계속 하는 것과 서울의 현실에서 아버지의 사업을 돕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혁진은, 정말 서울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 ㉠



김보년 ● 영화를 좋아하는 '요망단' 단원입니다.

나의 성우 이야기!!

최옥희 ●

노고지리가
부릅니다~!
음잔!



딸의 권유로 민우회 회원이 된 지 1년 가까워 온다. 그동안 <함께가는 여성>을 통해 회원님들의 다양하고 재밌는 얘기를 읽으면서 내 직업인 '성우 이야기' 도 하고 싶어졌다. 아주 가볍게!!!

방송 잘했다는 얘기보다 실수담이 더 재밌겠지?

1970년대 초 · 중반쯤 명언이나 수필을 낭독하고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는 '음악의 여로' 라는 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디가 써준 원고를 읽고, 끝에 지은이를 말하는데 난 '채근담에서' 라고 읽어야 할 것을 그만 '체조담' 이라고 자신 있게 말해버렸다. 사실 그때까지 난 채근담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나를 바라보는 피디의 안타까운 표정이라니...ㅋㅋ

청취자들의 희망 곡을 엮서로 받아 사연과 함께 들려주는 가요 프로를 진행 할 당시 '노고지리' 라는 쌍둥이 형제가 신인가수로 막 뜰 때였는데, 피디가 깜빡 잊고 원고에 가수 이름과 곡목을 안 적어 놔다. 벌써 전주는 나가고 당황한 나는 모른다는 싸인을 보내고... 눈치 챈 피디가 밖에서 음반 자켓을 보여줘 노고지리인 줄은 알았다. 근데 곡목은? 잠깐 생각하더니 잔을 들어 뭘 마시는 흥내를 내 보인다. 난 O.K. 싸인을 보내고, 불이 들어온 순간 내 입에서 나간 말- "네, 노고지리가 부릅니다. 술잔!" 순간 밖에서 엔지니어와 피디가 뒤집어졌는데 그 노래 곡목은 '차잔' 이었다.

이건 내 실수담이었고 다른 사람들 것도 몇 개 더 추가하자면 '지금 시각은 몇 시 몇 분입니다.' 라고 해야 할 것을 '몇 도 몇 분입니다.' 라고 했으며, 패티 김의 '푸른 사랑의 호수' 를 '푸른 사랑의 호수' 로 발음해버리기도 했다. 야구를 모르던 한 여자 아나운서는 뉴스 시간에 그날 있었던 야구대회 소식을 전하는데 '만루 홈런' 을 '만추홈런' 으로 읽어 그야말로 홈런을 터트렸다. 하긴 그때가 가을이기도 했지. 훗. 다 지난 일이니 웃으며 얘기하지만 그때 당사자들은 쥐구멍을 찾을 만큼 죽을 맛이였다.

방송을 하다보면 실수는 있기 마련.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도 중요하다. "뭐 어때? 그럴 수 있는 거지"의 '배 짜라 식' 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기분까지 상하게 한다(주로 선배급 들에 있지만). “에이 옆에서 자꾸 뭐라 수근 대니까 신경 쓰이잖아”, “아이고 어젯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더니 혀가 꼬이네.” 등은 핑계 형인데, 누가 그러했나? 좀 알미운 과다. 그런가하면 당황해서 얼굴 빨개지며 “죄송합니다, 어떡해, 어떡해,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주로 신입 성우나 경력이 오래 되지 않은 후배들의 경우다. 이럴 때 전체적인 분위기, “괜찮아, 선배들도 다 그렇게들 컸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 성우사회다.

목소리의 배우들

어쨌든 이렇게 개성 강한 사람들이 모인, 그야말로 ‘목소리의 배우’ 들인데 그렇다고 늘 즐겁기만 한건 아니다. 가끔 제기되는 문제지만 영어 좀 하시는, 그리고 영화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이(일부 소수지만) 외화를 볼 때 성우들의 더빙이 원작의 본질을 흐리게 하므로 차라리 자막 처리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본질을 흐린다는 게 뭐가? 이상한 톤이나 어미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차라리 우리식으로 편안하게 대사 했으면 하는데 우리 것도 아니고 그네들의 자연스러운 체도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성우들이 따끔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다.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자신이 극중 인물이 된 것처럼 몰입하게 하는 것도 연기하는 성우들의 몫이므로 더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분명 환경이나 문화가 다른 그네들의 삶을 직접 살지 않은 바에야 어차피 상상하며 연기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로마의 휴일’을 더빙하면서 우리 농촌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최불암, 김혜자씨 대사처럼 할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 거기다 자막이라는 게 그렇다. 외국어와 우리말의 어법이 달라 뜻을 표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문제제기를 해주신 분들은 잘 이해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시청자들, 예를 들어 연세 드시거나 나이가 어려 눈으로 자막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어린이들이 보는 만화영화에 자막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나, 집안에서 주방 일을 하면서, 혹은 뜨개질 같은 것을 손에 들고 영화를 볼 수도 있는데 잠시라도 자막을 놓친다면 이야기의 맥락이 끊어지고 재미마저 감소할 수 있다. 또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청각 장애인들의 경우는 반대로 자막이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은 성우입장의 얘기임을 밝혀둔다(그래서 수화방송을 하는 곳도 있고). 문제를 제시해준 분들과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다. 앞에서 얘기했듯 고마운 충고로 받으며 감사한다. 그러나 성우들의 문제만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의 파생되는 문제점들도 감안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빙 얘기를 하다 보니 생각난 건데 꽤 많은 성우들이 ‘책읽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책읽기 녹음을 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듣게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일을 맡아 하는 단체가 있고, 성우들은 녹음만 하지만 내가 가진 재능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해 쓸 수 있는 것도 보람이다.

소소한 얘기들로 지면을 다 써버렸지만 나의 성우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 하고 싶다. 흔히 성우들의 시대는 갔다고 하는데 우리의 역할은 크고 많다. 각종 예능 오락 프로, 다큐멘터리, CF,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각종 만화 채널, 외화더빙 등 중요한 부분엔 성우가 있다. 개인 팬클럽까지 있는 스타급 성우들도 많다.(물론 난 아니지만...^^;) 지금도 꿈을 갖고 열심히 실력을 쌓고 있는 성우 지망생들에게 격려를 보내고 싶다.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어려서 한참 엄마 손길을 필요로 할 땐 정말 바빠서 미안했는데 반듯하고 곱게 자라준(어미 눈에) 아이들이 이젠 ‘당당하게 일하는 엄마여서 좋다’는 평가까지 해주니 35년이 넘는 세월을 성우로 살아온 내 인생이, 내 직업이 성우라는 게 난 참 좋다. **㉠**

최옥희 ● 73년 데뷔. 현 KBS 성우
출연작품 : 외화 ‘해리포터’ 외 / 만화 ‘잇새 응가네’ 외

여행에 관한 짧은 기록

큐슈 여행에서 느낀 소소한 즐거움에 대하여!

이소희(바람) ●

우연히 급작스럽게 ‘쉽’이라는 시간이 내게 던져졌다. 응모한 ‘쉽’ 프로젝트에 선정 되었다고 연락이 왔을 때 깊은 밤, 기쁜 맘을 문자로 호들갑스럽게 나누었고, 바쁜 일정 속에서 여행 일정을 조정하고 계획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따리 뽕뽕 싸서 어느 집 담벼락 밑에 살짝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가끔 들었지만, 여하튼 우리는 여행을 다녀왔다! 5박 6일의 모든 순간을 꼼꼼히 기록하였다가 머리가 지끈거릴 때 마다 꺼내보려고 하였는데 여행을 다녀온 지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함께가는 여성> 원고 덕분에 나의 여행을 기록하게 된다.



싱기루, 가락, 바람, 페달, 주가이, 칩 시간을 읽다!

자전거를 타고 '변화와 여행을 사랑하는 언니들의 조각보(퀼트)같은 모임' 세바퀴! 급조된 팀명이었지만 그 의미는 뭔가 거창하다! 세바퀴 팀엔 형님 같은 주가이, '민우회' 바람, 성산동으로 이사 온 후 잠 못 드는 새벽 종종 도시락 반찬을 만드는 싱기루, 자전거를 타고 사무실 근처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는 페달,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자랑하는 칩, 연극에서부터 영화까지 연기 열정 가득한 가락이 모여 있다. 이렇게 여섯 그리고 개구쟁이 윤재까지! 2월 남쪽 나라, 큰 섬 '큐슈'에서 우리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머물렀던 도시에 대한 단상

후쿠오카 세련됨이 가득한 도시, 부산을 닮았음. 곳곳에 한국말이 쓰여 있어 다니기에 참 편했던 도시.



나가사키 묘하게 유쾌한 도시, 묘하게 발랄한 도시. 1945년 감당하기 힘들었던 충격을 기억하면서도 망각하고자 하는 도시. 꽤 규모가 큰 차이나타운 존재. 인천을 닮았음. 나가사키 짬뽕-백색짬뽕이 유명함.



구마모토 밤 문화가 발달한 도시. 중후함이 느껴지는 도시. 아소를 안고 있는 도시. 말고기 회가 유명함.

20090210 '우미노나카마치' 역으로 가는 길



바다 건너 남쪽 섬마을은 봄이더이다. 연두빛 들판에 매화꽃이 피고 동백이 피고, 노오란 나무 열매들. 비온 뒤 맑게 갠 날이라 그런지 집집마다 빨래가 널려 있었다. 온갖 가지 옷들과 이불 빨래들. 햇볕 아래 보송보송함. 이 동네 사람들은 맑게 갠 하늘을 향해 '안녕' 인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듯했다. 시골길, 여유로움, 고요함. '우미노나카마치' 역으로 가는 길이 마냥 행복하다.

20090212 이자하야

여행 책자에는 '나가사키역'에서 운젠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분명히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가사키' 역 인포메이션센터에서는 바로 가는 버스가 없다고 한다. 운젠으로 가기 위해 '나가사키' 역에서 JR을 타고 '이자하야'역 하차. 그러나 이자하야 버스터미널에서 운젠으로 가는 버스는 방금 떠났고 2시간 뒤에나 운젠으로 가는 버스가 있다고 한다. 작은 시골 마을 이자하야. 온사마를 좋아하는 친절할 터미널 매표소 언니에게 짐을 맡기고 아침산책 시작. 놀이터에서 한참 그네랑 미끄럼틀을 타다가, 주택가에 만들어진 붉은 기운과 습한 기운이 가득한 동네신사 방문. 남에 집에 들어선 고양이마냥 조용조용 발걸음을 움직인다. 맞은편에 또 하나의 신사가 있다. 붉고 습한 신사와 달리 햇빛 가득한, 오랜 시간 사람들의 손때 묻은 정감 있는 신사. 그곳에서 약수 한잔 들이 키고, 일가(一家)가 함께 카스테라를 굽고 모나카를 만드는 과자점에서 친절할 주인 할아버지가 전해주는 달달한 간식거리들을 먹고, 주인 할아버지 손녀딸·가족들과 사진 한 장 찍으며 은은히 마음을 나누고, 서울 있는 엄마에게 전해 줄 작은 모나카 상자 손에 들고 흐뭇했던 아침. 마음까지 고요해지더라- 발걸음까지 평화로와지더라-

20090213 아소산

창밖으로 보이던 아소산의 모습은 마치 대지의 여신이 평온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있는 모습 같다. 아소에 올라섰을 때 '경이롭다.'는 표현을 이곳에서 말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부드러운 능선과 능선이 끊임없이 마주하는 산, 아소산. 그 안에 내가 있었다. 자연의 품속에 포옥 담겨 있었다. 아소산에서 왜 이리 임여사가 생각이 나는지, 엄마와 함께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과 '아소산. 참 엄마를 닮은 산이구나.' 라고 홀로 중얼거린다.

비록 나 지금 일상으로 돌아오려라도...

걷고 또 걸었던 여행, 대화가 이어지다가도 간간히 찾아오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던 여행. 똑같이 느끼다가도 각자의 해석과 느낌이 공존했던 여행. 여행의 피로를 달달한 밀납초 향과 시원한 맥주 한 잔으로 씻어 냈던 여행. 이 모습이 바로 세바퀴팀의 여행 풍경이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은 '나만의 여행을 또 기획해볼 수 있겠다! 어느 날 또 이렇게 떠나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 직접 책을 뒤져가며 여행지를 선정하고, 여기 저기 들어가며 목적지를 찾는 즐거움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고정된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여행의 매력에 난 지금 흥뻑 빠져있다. 일상으로 돌아 온 지금, 지나온 여행을 추억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충전과 심을 기획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안에 만들 수 있어 지금이 딱 좋다! 그래서 울분은 경주대! 뽕! ㄹ

이소희(바람) ● 산들에 부는 바람이 아닌 임여사의 딸, '민우회' 바람입니다. 세바퀴 팀명을 지어주시고 께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희망의 봄을

봄맞이 건강 밥상

김현정 ●

지난 겨울은 경기 한파 때문인지 더욱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어느덧 우리 곁에 성큼 봄이 찾아 왔네요. 봄은 생명이 자라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는 계절입니다. 겨우내 움츠려 있던 가족과 이웃들이 몸과 마음의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상큼한 봄나물로 밥상을 차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철 음식은 모두 보약이라고 합니다. 봄을 식탁에 올려 가족과 이웃들이 한껏 봄기운을 받는다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릴 것입니다.



봄날 밥 도둑 봄동 걸절이

겨우내 우리 밥상을 책임졌던 김장 김치가 술술 물릴 때도 되었습니다. 또 봄은 노곤함을 함께 데려옵니다. 온몸이 노곤하고 입맛도 없을 때는 상큼한 봄동 걸절이를 해서 드셔 보세요. '봄동'은 '떡 배추'로도 부르는 데 이른 봄에 먹는 어린 배추를 가리킵니다. 겨울 배추를 잘라 내고서 배추밭에 남은 뿌리에서 나오는 싹이 바로 봄동입니다. 한 겨울 찬바람과 눈과 서리를 견뎌내고 자란 봄동은 가을배추 보다 약간 두껍습니다. 그러나 잎과 줄기는 정말 부드럽죠. 생으로 먹거나 된장국을 끓여 먹어도 좋고, 니물로 무쳐 먹어도 구수한 맛을 냅니다. 파릇한 봄동에 손으로 푹 푹 자르고 흐르는 물에 씻은 후에 고춧가루, 간장, 파, 마늘 등 양념을 쓱쓱 버무리면 상큼한 봄동 걸절이가 탄생합니다(까나리액젓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반찬이 없어도 밥 한 그릇 푹딱 감추는 건 금방입니다.





엄마 손맛이 떠오르는 썩국

이맘때가 되면 쌀쌀한 봄바람을 맞으며 논둑에서 냉이와 썩을 캐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요즘에는 논둑에까지 제초제를 뿌려 썩과 냉이를 캐 수 없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서 공급하는 냉이와 썩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생협에서 공급하는 썩은 임자도 해안가 산등성이에서 바다 냄새를 듬뿍 받으며 자란 자연산 썩입니다. 임자도는 제초제를 쓰지 않는 섬인데, 섬 주민들이 3월 초순부터 자연에서 자란 썩을 직접 채취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합니다.

어린 썩을 날콩 가루에 버무려 끓는 물에 넣고 살짝 끓여 소금 간을 하면 썩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수한 콩가루와 알싸한 썩 향이 조화를 이룬, 몸에 좋으니 남기지 말라는 친정 엄마의 썩국, 바로 그 맛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썩국의 맛이 더욱 깊어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두릅

‘봄에 쓴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긋하면서 쓴맛이 강한 봄나물들이 대개 식욕을 살려주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지에 새순을 틔운 두릅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생협 매실회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봄을 한가득 먹은 듯하답니다. 두릅의 맛을 모를 때는 초고추장 맛으로 먹었는데, 이제는 봄의 나른함을 이기고자 두릅을 찾게 됩니다.

두릅은 단백질이 많고 지방·당질·섬유질·인·칼슘·철분·비타민(B1, B2, C)과 사포닌 등이 많아 혈당을 내리고 혈중지질을 낮추어 당뇨병·신장병·위장병에 좋다고 합니다. 특히 사포닌이라는 성분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큼니다. 그래서 두릅을 먹으면 혈당치를 낮춰 당뇨병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릅은 냉한 식물이어서 많이 먹으면 설사나 배탈이 나기 쉽다고 하네요.



밥상에 봄꽃이 가득 ‘먹는 꽃, 돌나물 비빔밥’

이제까지 향과 맛으로 봄을 먹었다면, 이제는 눈으로도 봄을 맛볼 차례입니다. 바로 여성민우회 생협에서 공급하는 ‘먹는 꽃’을 이용한 화사한 비빔밥입니다. 물론 매우 예뻐 차마 먹기 아깝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현미밥 위에 먹는 꽃과 돌나물을 올리고 생협 고추장에 참기름을 뿌려 쓱삭 비비면 한입 가득 봄과 건강을 머금을 수 있습니다. 생협에서 공급하는 먹는 꽃은 출고되는 수량만큼만 수확하고 당일 바로 수작업으로 포장합니다. 먹는 꽃은 봄이 되면 꽃의 향기가 강해지고 더욱 생생해진다고 하니, 바로 지금이 먹는 꽃의 향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때가 아닌가 합니다.

농약 걱정 없는 안전한 먹을거리인 여성민우회 생협 생활재료 건강한 밥상을 함께 차려 보아요. 저도 봄동, 썩, 냉이, 달래, 두릅 등 봄맛이 밥상을 차릴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

진주여성한마당



정윤정 ●

2009년 3월 7일 오후 2시, 진주 남강의 고수 부지에는 우리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이 걸리고 피켓이 장식되었다. 이날 이례적으로 진주시의회 여성의원이 한명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였고, (남성 시의원 2명과 가정복지과 과장도 참여하였다) 이후 3.8세계 여성의 날 기념사업 진주여성 한마당을 위한 간담회를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이처럼 올해 3.8여성대회는 진주 여성운동사에 굴곡 하나를 만들었다. 그동안 3.8세계여성의 날 행사는 진주에서 작게나마 기념행사를 하고 서울에서 하는 한국여성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정석으로 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각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자는 결의와 함께 특히 지역행사에 집중하게 되었다. 진주에서는 615여성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진주지역에 있는 여성을 조직하여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한다. 지역의 많은 시민이 모여주길 늘 희망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우리라도 함께 하자고 결의한 참가 조직 각각의 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그 회원이 시민이 아니던가? 진주지역에 현수막과 언론 홍보를 통해 3.8세계 여성의 날과 여성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알려내고 진주여성한마당을 기획하였다.

여성이 함께 하면 참 재미난다. 우리는 진주여성민우회 회원이 땀 흘리며 연습한 난타공연을 통해 신명을 일으키고, 그녀들은 우리 '진주여성민우회' 회원이 가르쳐주는 율동을 참석한 모든 사람과 함께하면서 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우리가 만들기로 다짐하였다. 우리는 여성 삶의 걸림돌로 선정하 1)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2)여성차별, 성역할 강요 3)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저임금 4)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부장제 5)여성의 희생 강요

하는 MB약법을 허들 뛰어넘기로 넘어보면서 새삼 여성으로 세상 살기를 서로 나누며 깊은 자매애를 느꼈다. 홀라후프를 38번 돌려보며 3.8여성대회를 각인하고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었다.

여성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여성이 어울려 놀면서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 싶었다. 우리의 요구는 피켓으로 전시를 하고(1.관찰은 일자리 100만개 창출 2.부자감세 반대, 교육복지 확대 3.민주주의 수호, 여성인권 보장 4.함께해요 여성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 5.뉴딜정책 핵심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6.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복지 확대!!! 7.NO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8.매매혼 형태의 국제결혼 반대 9.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장을 요구합니다! 10.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 긴 줄넘기대회, 홀라후프 대회를 즐기면서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을 여성이 만들자'고 뜻을 모아 외쳤다.

진주시 가정복지과 과장, 진주시의회 여성의원들과의 간담회에 많은 관심이 쏠려있다. 3.8여성대회가 지역에서 힘 있게 여성을 모아내고 진주여성대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시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운동가가 늘 희망하는 것은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의 날이지만 어디 시민과 함께하는 것이 쉬운가 말이다. 여성이 한자리에 모이기관 참 쉽지가 않음을 우리 경험 속에서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포기 할 순 없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시도해보려 한다. **☺**

정윤정 ● 진주여성민우회 활동가



지부 소식

www.womenlink.or.kr

교양여성민우회

몸으로 소통하고 관계맺기

- 가족관계촉진프로그램

연극놀이를 통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또 다른 나를 깨우는 시간

- 일시 : 4월 21일~6월 16일
- 장소 : 교양여성민우회 교육장

성평등한 고양시로 Let's go!

고양시 지역 주민자치위원, 아버지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 일시 : 4월 수, 목요일
- 장소 : 각 구청 내 회의실

참여하는 여성이 아름답다~여성이 만드는 희망정치

2010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경기지역 여성의 정치 후보자를 발굴하고 육성 함

- 일시 : 4월 15일~6월 17일
- 장소 : 추후공고

나눔장터

아나바다장터, 먹거리 장터

- 일시 : 4월 24일(금)
- 장소 : 주엽매장 앞 공터

광주여성민우회

13기 자원상담원 양성교육

여성주의 의식을 함양한 자원상담 활동가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우리 사회의 성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주의 성폭력 상담을 할 수 있는 새싹 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함.

- 일시 : 3월 17일~5월 6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광주민우회 교육실에서

성교육강사, 동네로 출장합니다

- 찾아가는 성교육

학부모 또는 자녀들의 성교육을 이제 동네에서, 우리집 거실에서 할 수 있도록 성교육강사들이 동네로 출장합니다. 학부모 또는 자녀 5인이상이 모여 접수 하면 출강합니다.

- 일시 : 4월~연중
- 장소 : 학부모 또는 자녀 5인 이상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콜~

다솜누리 심리치로실이 생겨요 아싸~

다솜누리에 편안하고 인락한 공간 심리치료실 공사가 시작됩니다. 다솜의 어중간했던 공간이 꼭 필요한 공간으로 변신 기대 만뽕!

- 일시 : 4월 내내
- 장소 : 다솜누리

산모들, 조조할인, 자취방 소모임 시작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회원들의 소모임 '산모들'과 영화읽기모임인 '조조할인', 자원상담원 하시다 취직을 하신분들의 모임인 '자취방'이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신명난 활동 기대해봅니다.

- 일시 : 매일 1회(3월, 4월에 각각 시작)
- 장소 : 산과 영화관근처, 사무실에서

회원확대 집중의 달 선포

활동가를 비롯한 회원 및 소모임을 필두로 회원확대 집중의 달을 선포하고 회원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회원 개인 부문과 소모임부문은 포상도 준비되어 있다는 소식~

- 일시 : 3월~4월

봄 민우데이

회원들과의 만남을 장터형식으로 기획했습니다. 올해 총 4번중 그 첫번째, 물품판매 및 교환, 민우화폐, 신입회원만남의 날

- 일시 : 4월말
- 장소 : 민우 벚들

3기 여성주의 성교육강사 전문과정

기본과정 수료하신 쌤들이 전문과정에 돌입합니다. 긴 여정이지만 힘내시고 내안의 여성주의를 깨우는 시간들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일시 : 3월 20일 첫모임 후 매주 1회
- 장소 : 광주민우회 교육실

군포여성민우회

재능나눔 민우데이

재능있는 회원이 강사가 되어 특강을 진행. 비즈공예로 브로치 제작

- 일시 : 3월 24일(화) 10시 30분
- 장소 : 군포민우회 교육장

생활환경지도사 양성교육

여성의 눈으로 세상바라보기 생명살림의 눈으로 우리아이 미래의 주역으로 키우기

- 일시 : 5월 6일 매주(수), 오전10시-12시 (총 5회) 기본과정
- 장소 : 군포민우회 교육장

민우어린이학교

체험을 통해 생생하게 배워보는 군포지역
알기 프로그램

- 일시 : 4월 첫째주~셋째주 매주(수) 오후 3시 (총3회기)
- 장소 : 군포여성민우회, 시청, 시의회, 관공서 등

군포예산지킴이 거리캠페인

낭비예산 예산 시민에게 알리고 지킴이 활동가 모집

- 일시 : 3월 18-21일 오후3시-5시
- 장소 : 산본중심상가지역

창립10주년 기념 회원의 날

회원들과 함께 흥겨운 한마당

- 일시 : 4월 30일(목)
- 장소 : 군포민우회 교육장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과 지역의 여성운동가 양성

- 일시 : 3월 9일~4월 22일(총64시간)
- 장소 : 산울교육장

서울남서여성민우회

홀커밍데이

지부창립기념 정회원 만남의 날

- 일시 : 5월 초
- 장소 : 서울남서민우회 교육장

알뜰장터

지역주민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알뜰 장터

- 일시 : 4월, 5월 넷째주 토요일
- 장소 : 양천문화회관 분수 광장

거리 캠페인

양천구 예산분석운동에 대한 홍보

- 일시 : 4월 중순
- 장소 : 양천문화회관

일어 소모임

일본어 무작정 따라하기(3월 19일 개강)

- 일시 : 매주 목, 오전 9시 30분~11시
- 장소 : 서울남서민우회 교육장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여성이 새로 만드는 지역문화 “책잔치”]

재미난 책, 행복한 마을

좋은 책 읽어서 좋고, 값이 싸서 더 좋고... 우리, 동네에서 ‘책’을 읽자!
인문학 책을 널리 알리면서, 책을 사면서 기부도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자리입니다.

- 일시 : 4월 18일(토) 11시~5시
- 장소 : 도봉구 방학동 발바닥 공원내

함께크는 박물관 학교 “아름다운 나라, 백제”

조금 더 가까이서 백제문화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 참가비 : 3회, 15만원 (정회원 10% 할인)
- 대상 : 초등 3~6학년
- 일시 및 장소
4/19(일)-국립 공주박물관,
5/17(일)-백제 역사 문화관,
6/21(일)-몽촌토성

도봉곳간지킴이 모임

월1회, 도봉구의 의회와 의정, 구행정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 일시 : 3월 31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동북민우회 교육장

달맞이와 함께 보는 “여성영화”

민우회에서 영화 함께 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여성과 관련된 영화를 달맞이팀이 준비했습니다. 4월 함께 볼 영화는 “노트북”입니다.

- 일시 : 매월 셋째주 월요일 10시
- 장소 : 동북민우회 교육장

[부당이득반환 주민소송]

과도한 도봉구의원

의정비 반환 청구 소송 결심 공판

2007년부터 시작된 도봉구의원 의정비의 과다인상 반대 싸움의 일단락이 됩니다.

2007년 12월 주민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5월에 제기한 반환청구소송이 6회의 공판을 거쳐 오는 4월 22일 결심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들의 관심과 좋은 결과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4월 22일(수) 오전10시
- 장소 : 서울지방법정법원

원주여성민우회

언니네 베품시장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 친환경적인 물건의 재활용, 지부의 수익사업

- 일시 : 3월 21일(토) 오후 2시~4시
- 장소 : 밝은 신협 건물 앞

10주년 기획회의

원주여성민우회 10주년을 맞이하여

- 일시 : 3월 26일(목) 낮 12시
- 장소 : 민생회관

오카리카 강좌 시작

아름다운 음색을 지닌 악기를 배우면서 자기 성장

- 일시 : 3월 25일, 오전 10시 30분~12시
- 장소 : 원주여성민우회

운영위워크샵

운영위원의 더 원활한 소통과 자기 성장을 위한 워크샵

- 일시 : 4월 10일~4월 11일
- 장소 : 백운산 휴양림

성교육 강사 교육

여성주의적 정체성을 지니고 열정과 역량을 지닌 강사 육성 과정을

- 일시 : 4월 27일부터
- 장소 : 밝음신험 2층 회의실

인천여성민우회

회원의 날(여우이해)

회원들의 모임을 통하여 자매애를 키우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 일시 : 3월 27일(금) 19시부터
- 장소 : 인천민우회 교육장

인천시민연대활동(계양산살리기)

계양산골프장건설 반대 단식농성과 서명 반기와 홍보전단 배부하기

- 일시 : 4월 14일(화) 10시부터
- 장소 : 계양산 천막 농성장

여성주의 전문극단 양성과정

시지원사업으로 여성극단 프로그램 진행 회의 및 행사홍보와 연극공연

- 일시 : 3월 16일~7월 3일
- 장소 : 인천민우회 교육장, 강화캠핑장, 연극소극장

진주여성민우회

3.8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걷기대회, 퍼포먼스

- 일시 : 3월 7일(토) 2시
- 장소 : 예술회관 앞 고수부지

생협강좌

요즘아이들 성장 왜 빨라지나?

- 일시 : 3월 11일(수), 10시 30분~12시 30분
- 장소 : 진주민우회 교육장

생협식사회

꼬마김밥, 현미떡볶이떡, 감원차

- 일시 : 3월 20일(금), 오후 3시~5시
- 장소 : 유기농 판매장앞

우리동네알뜰살뜰 번개시장

집에 둔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들어요

- 일시 : 3월 21일(토), 2시~4시
- 장소 : 신안동 주공1차APT 분수대앞

공부방체험학습

진달래, 숙화전만들기

- 일시 : 3월 28일(토), 10시
- 장소 : 수자원공사 가족놀이공원

성교육강사교육

성교육강사양성

- 일시 : 3월 10일~4월 16일(매주 화, 목)
- 장소 : 진주민우회 교육장

논개제 노래자랑 예선

진주시 논개제 여성노래자랑

- 일시 : 4월 11일(토), 2시~4시
- 장소 : 청소년수련관대강당

논개제팔씨름예선

진주시 논개제 여성팔씨름대회

- 일시 : 4월 18일(토), 2시~4시
- 장소 : 신안동 주공1차APT 분수대앞

미디어강사 양성교육

- 일시 : 4월 중
- 장소 : 시민미디어센터

춘천여성민우회

인문학, 시민을 품다

인문학 대중강좌

- 일시 : 2월~6월(매주 목, 오후 7시30분)
- 장소 : 광장서적 북카페

한부모 서로돕기모임

한부모 서로 힘주고 함박기

- 일시 :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후 7시
- 장소 : 달팽이공부방

자매들의 베풀시장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쓴거 또 쓰는 환경장터

- 일시 :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3시
- 장소 : 공지천 산책로

들꽃나들이

춘천 능선따라 걷기

- 일시 : 4월 25일(토)
- 장소 : 미정



독자마당

회원이 민우회의 주인입니다.

[함께가는 여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함께가는 여성]을 읽고 느낀 점이나, 민우회에 바라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독자마당'을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채택된 의견에 대해서는 민우회가 마련한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독자의견은 민우회 이메일 minwo@womenlink.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웃어라 민우회! 민우회원 생활백서

사랑을
회원으로
사랑하기!!

- 1 민우회에 대한 나의 애정을 표현하고 싶다.
- 2 민우회로 전화를 하거나 메일을 보낸다.
- 3 천원이든 만원이든 사알~짝 회비를 올린다.

회비 인상하신 고마운 회원분들!!!

신수경 이해영 장윤주

신입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강은주, 강명숙, 강지혜, 강하영, 고기방, 김미경, 김미영, 김미영, 김미혜, 김민경, 김민경, 김서현, 김선경, 김보국, 고현숙, 권영애, 권인량, 권은정, 김가현, 김남, 김미현, 김미현, 김미화, 김승지, 김영미, 김은정, 김선균, 김연희, 김영림, 김영미, 김원정, 김은미, 김인숙, 김인혜, 김지순, 김진남, 김진희, 김은주, 김이영미, 김정란, 김종덕, 김지현, 김태선, 김현주, 김혜정, 나창진, 나희정, 마복순, 김진희, 김창배, 김현아, 김현혜, 김호진, 목소영, 목진주, 문영경, 민승리, 박수희, 배범호, 모영순, 모우에 히로코, 문대일, 문소영, 문희정, 민준규, 박갑용, 박명은, 박선주, 박성자, 박은영, 박혜수, 방대건, 배석자, 배성태, 백대진, 변선영, 봉정선, 손은주, 시민생활 환경회, 신유희, 신희영, 서미원, 서정훈, 서주호, 손민숙, 송주라, 신명희, 신미숙, 신미숙, 신미정, 신지심, 신현주, 송미호, 안옥희, 안성심, 양정훈, 엄용희, 엄희상, 윤소희, 윤은지, 윤춘향, 이나현, 이교숙, 이미경, 이동진, 이명희, 이세연, 이유갑, 엄수경, 엄혜진, 오경희, 오김현주, 유지연, 윤희자, 이미현, 이승철, 이신남, 이수진, 이울리아, 이우진, 이익숙, 이현숙, 이현정, 이희완, 이정숙, 임은주, 임진자, 임형숙, 장효인, 전애라, 전재완, 조성미, 조영준, 최병옥, 최영미, 임성규, 임수영, 임수진, 정승우, 정은영, 정영목, 정은숙, 조김경하, 조영수, 조혜영, 천준호, 최민혜, 최원석, 최영순, 최유미, 최유진, 한홍길, 허선미

(2009년 2월 3일~3월 20일)

시민공간 '나루' 건축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해주실 분을 간절히 모십니다!

어우러져 물길을 여는 나루, 나루의 물길을 함께 내어 줄 뜻있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우회에 대출을 해주신다면 1년을 계약기간으로 1년 뒤 상환시 연리 4%의 이자를 함께 돌려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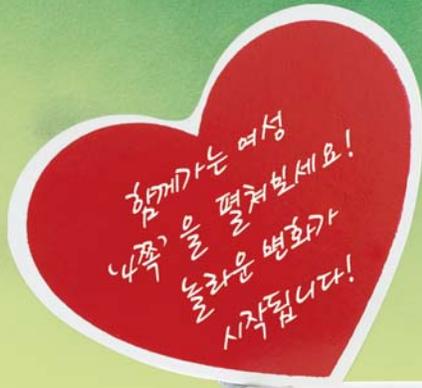
- 대상 : 개인 또는 집단
- 금액 : 100만원 이상 가능
(예,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등)
- 이율 : 연리 4%(복리, 이자소득세)
- 기간 : 대출해주신 날로부터 1년
- 문의 : 02-737-5763(담당 : 주가미),
minwoo@womenlink.or.kr

시민 공간 '나루' 건축자금 마련을 위해 3월 13일 현재 대출하여 주신 고양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박혜정, 전민주, 조혜련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대출은 안정적으로 여성운동을 벌이는데 소중한 기여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지

<함께가는 여성> 쪽지 중 [국제통산원]은 2009년 1~2호에 실린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여성운동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였으나 시기적절 하게 그 소식을 전하기도, 함께 할 필자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여 폐지됩니다.

민우회 회원과 함께하는 캠페인!



회원문의 02-737-5763 팩스 02-736-5766

고용평등상담 02-706-5050 팩스 02-736-5766

미디어운동본부 02-734-1046 팩스 02-739-1047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 팩스 02-736-5766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02-581-1675 팩스 02-3679-2202

서울남서여성민우회 02-2643-1253 팩스 02-2643-1252 매장 02-2643-6060

서울동북여성민우회 02-3492-7141 팩스 02-3493-9221 생협 02-3492-7140 생협매장 02-3492-9999

고양여성민우회 031-907-1003 팩스 031-907-5009 매장 031-919-1774 상담 031-919-1366

광주여성민우회 062-529-0383 팩스 062-529-0384 상담 062-521-1366 성폭력쉼터 062-462-1366

군포여성민우회 031-396-0201 팩스 031-394-2343 매장 031-396-0261 상담 031-396-0236

원주여성민우회 033-732-4116 팩스 033-744-0113

인천여성민우회 032-525-2219 팩스 032-525-2256

진주여성민우회 055-743-0410 팩스 055-746-9771 매장 055-746-7077 상담 055-746-7462

춘천여성민우회 033-255-5557 팩스 033-243-9746



 한국여성민우회 Korean WomenLink

(121-250)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3층 Tel 02-737-5763 Fax 02-736-5766
E-mail minwoe@womenlink.or.kr 홈페이지 www.womenlink.or.kr